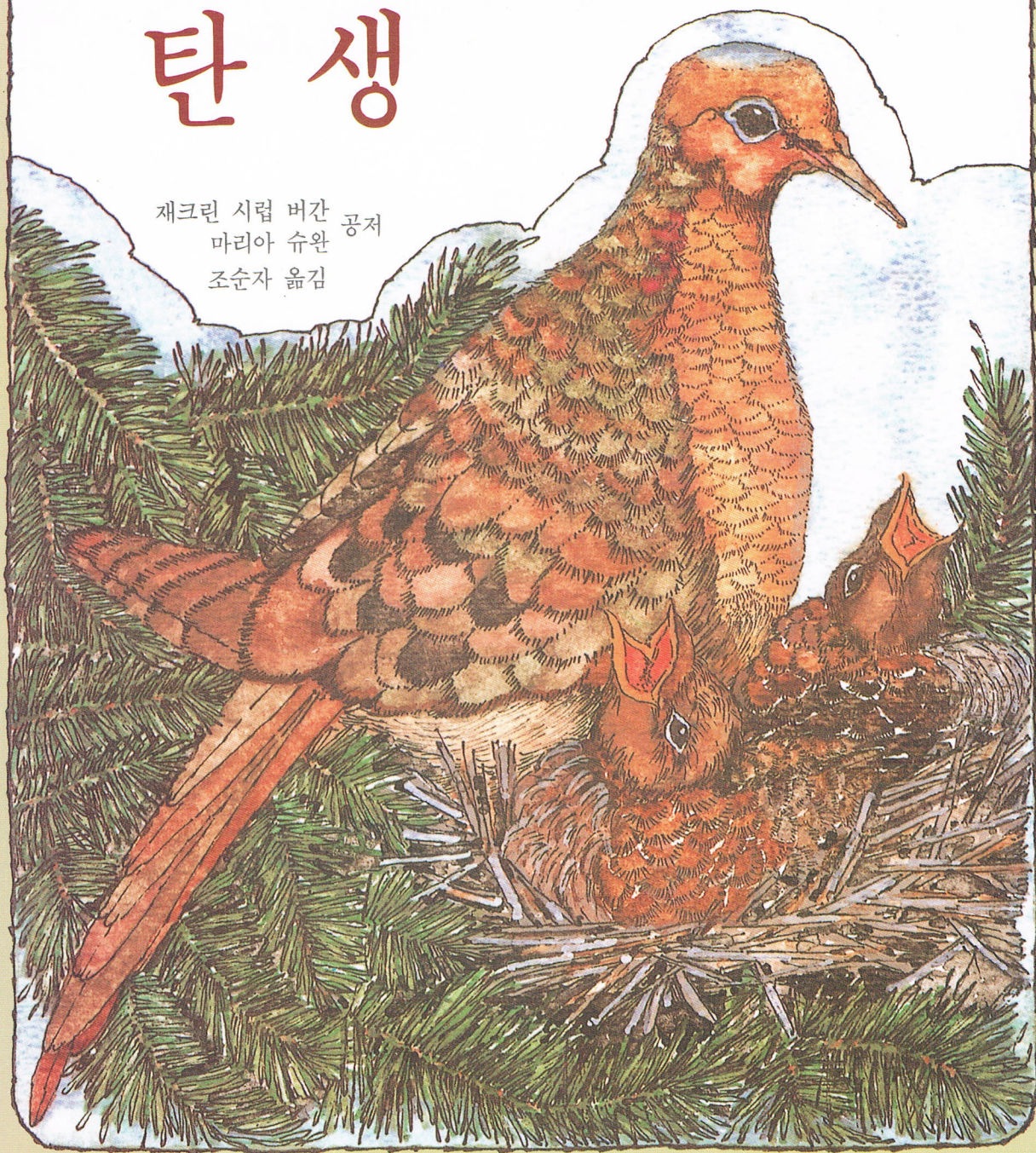


탄 생

재크린 시럽 버간 공저
마리아 슈완
조순자 옮김



지은이



재크린 시럽 버간



마리아 슈완

탄 생

기도의 안내서

재크린 시럽 버간 공저
마리아 슈완
조순자 옮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3권

 성도 출판사

Copyright © 1985

by Jacqueline Syrup Bergan, S. Marie Schwa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text may be reproduced
by any means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St. Mary Editions Seoul, Korea 1993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깊은 뜻을 명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속으로
그렇게도 완전하게 들어오시는 하느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성령의 힘이 작용했었던 것과
우리가 성령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의 존재와 힘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본받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 차

추천사.....	8
머리말.....	10
한국의 독자들에게.....	11
옮긴이의 말.....	12
감수자의 말.....	14
일러두기.....	15
표지 도안.....	16
서문.....	18

기도 안내

A. 매일기도 양식.....	21
1. 준비.....	21
2. 기도시간의 짜임새.....	22
3. 기도 후 반성.....	22
B.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	23
1. 묵상.....	23
2. 관상.....	24
3. 내심기도.....	25
4. 만트라.....	26

5. 묵상독서.....	27
6. 영적일기.....	27
7. 반복기도.....	28
C. 영적훈련과 도움들.....	29
1. 의식 성찰.....	29
2. 신앙체험 나누기.....	31
3. 기도 중의 상상의 역할.....	33
4. 분심에 대한 대응책.....	33

사랑과 찬미의 기도

제1주 : 제1일 침묵과 내어맡김(루가 1, 26-38).....	37
제2일 하느님의 완전한 선물(루가 1, 26-38).....	41
제3일 새로운 창조(루가 1, 26-38).....	45
제4일 기쁨의 용약(루가 1, 39-56).....	49
제5일 시간을 초월한 탄생(루가 2, 1-14).....	54
제6일 반복.....	59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제2주 : 제1일 기다림의 끝(루가 2, 22-39).....	62
제2일 찾아다님(마태 2, 1-12).....	67
제3일 이집트에서의 귀환(마태 2, 13-23).....	71
제4일 예수의 소년 시절(루가 2, 51-52).....	76
제5일 소년 예수를 찾음(루가 2, 41-50).....	80
제6일 반복.....	84

나를 따르라

셋째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86
제3주 : 제1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다(I 디모 6, 3-12)	89
제2일 성령의 지도를 따라(갈라 5, 16-25).....	96
제3일 '나'로부터 '우리'에로(마르 10, 35-45).....	103
제4일 반복.....	110
제5일 세 사람(마태 6, 33).....	112
제6일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마르 10, 17-30).....	117

주님의 성령이 내게 주어지다

제4주 : 제1일 성령 안에서 걷다(마태 3, 13).....	124
제2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마태 3, 13. 16-17).....	128
제3일 참된 정의(이사 42, 1-9).....	133
제4일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마태 4, 1-11).....	139
제5일 취임사(루가 4, 16-30).....	145
제6일 반복.....	150

와서 보시오

제5주 : 제1일 와서 보시오(요한 1, 35-51).....	152
제2일 가나의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요한 2, 1-11).....	157
제3일 생명의 물(요한 4, 5-30. 39-42).....	162
제4일 반복.....	168
제5일 사랑은 응답한다(요한 15, 12).....	169
제6일 바오로의 마음.....	174

나요, 용기를 내시오, 겁낼 것 없소.

제6주 : 제1일 물 위를 걸으신 기적(마태 14, 22-33).....	178
제2일 예리고의 믿음 깊은 맹인(마르 10, 46-52).....	182
제3일 믿음을 갖고 예수 옷에 손을 댄 여자(마르 5, 25-34).....	186
제4일 예수를 환영함(루가 10, 38-42).....	191
제5일 반복.....	195
제6일 사랑의 혁명(루가 6, 17-38).....	196

부록1 : 추가 기도문.....	202
부록2 :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204
부록3 : 기도 안내 목록.....	207
성서 구절 색인.....	209
참고 문헌.....	212

추 천 사

복음화 2,000년을 향한 거룩한 교회는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목 계획을 수립, 작은 공동체에서 교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초대 교회 모습을 닮아 '사귄'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서로 사귀고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이룩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삶 안에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 강생과 수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유의 삶을 관상하고 우리의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협력하기 위하여,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사랑'과 '용서'에 이어 '탄생'은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묵상과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나오는 다섯 권(사랑, 용서, 탄생, 포기, 자유)의 내용은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기초로 하여 평신도들을 위해 쓰여진 것인데, 최근에 와서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여 동안 20명의 교우들에게 '사랑'에 이어 '용서'의 영어 원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4~7명의 소규모 모임과 50~60명으로 구성된 모임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분들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영신수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들과 가정과 작은 모임과 그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대규모 공동체 안에서, 쇠신된 삶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사랑이신 하느님과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여 니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둘째 권 '용서'와 첫째 권 '사랑'에 이어 셋째 권 '탄생'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읽히지게 됨을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 백성 모두가 이 책을 통해 영적 심화와 복음화의 과정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3. 8. 15

서울 가톨릭대학 김창훈 신부

머 리 말

예수께서는 잉태되셨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여정에서,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들과 아주 똑같으셨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완벽하게 신성을 지니셨으면서도,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로서 또한 완벽하게 인간적이셨다.

인간으로서 보내신 그분의 인생 여정은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이다. 그분의 여정 도상에서 가장 특이한 면 중의 한 가지는 그분께서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성서에서도 예수를, 성령으로 충만되셨고, 성령에 의해 사막으로 인도 되셨으며, 성령의 힘으로 생활하셨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던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성령이 그분께 임하셨음을 스스로 증언하셨으며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느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깊은 뜻을 명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속으로 그렇게도 완전하게 들어 오시는 하느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성령의 힘이 작용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의 존재와 힘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본받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셋째 권 「탄생」은 예수의 신비로 우리를 깊이 인도해 주며,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들로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는 성령의 힘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85년 7월 31일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축일에
크룩스톤 교구장, 빅톨 H. 볼크 주교
크룩스톤, 미네소타

한국의 독자들에게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를 한국말로 옮기고 출판한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순간부터 우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 기도 안내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닌 희망 중의 하나는, 철저히 성서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과 일치할 갈망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겪는 삶의 체험에도 충실한 기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를 사용하여 혼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책들 속에서 그분들 자신의 내적 여정을 위한 기본틀과 받침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진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은총 가득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인다운 모든 행동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한분 한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재클린 시럽 벵간 & 마리아 슈완 수녀

웁긴이의 말

때로는 아득하게 멀리
그런가 하면
때로는 아주 가까이
내 맘속에 살아계시는 분
주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당신

저는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떨리고
당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저려웁니다.

때로는 억수비로
제 가슴을 적셔 주시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함박눈처럼
포근히 저를 덮어 주시는 분
주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당신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탄생」, 「포기」, 그리고 「자유」를 번역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두었던 이 글은, 서툴지만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이 시리즈를 번역하는 동안 어둡고 추운, 끝없는 터널같기만 했던 겨울이 지나갔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는 희망을 갖고 방황했던 봄도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역자는 이 시리즈를 읽고 번역하면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증거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마음으로나마 체험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시리즈를 읽으시고 독자 여러분께서도 고독한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 인생에서 영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역자에게 주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때로는 억수비처럼 또 때로는 함박눈처럼 제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창훈, 변희선 두 분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7월, 프리비던스에서
조순자(안젤라)

감수자의 말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가 한국말로 옮겨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저자이신 마리아 슈완 수녀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번역해 주신 강연중 선생님, 「용서」를 번역해 주신 강구영 교수님, 그리고 나머지 세 권, 즉 「탄생」, 「포기」, 「자유」를 번역해 주신 조순자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가톨릭대학교의 영신 지도 신부로 수고하시는 김창훈 신부님의 도움과 정성이 없었더라면 이 시리즈는 완역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들에 추천의 글까지 써주신 김 신부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모출판사 정옥동 사장님의 희생적인 출판에 감사드리며, 한국 교회의 영적 쇄신에 한몫을 담당하시는 정 형제님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1993년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축일에
Boston College에서 변희선 신부

일러두기

이 책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우선 이 책의 맨 앞 부분에 나오는 기도 안내를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에 다른 영신 서적이나 소설처럼 이 책을 읽으신다면, 원 저자의 본래의 지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겠습니다.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생소하신 분들에게서 이 책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영적인 조연자들(사제, 수도자, 평신도)을 만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영신수련에 대한 체험과 지혜가 풍부하신 분을 중심으로 신앙 체험 나누기 모임을 가지면서 이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초심자들에게는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성서 구절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공동 번역 성서를 원본대로 인용하였으나, 최근에 출판된 200주년 신약 성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판 원본에는 참고 서적들에 대한 인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한국 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한국말로 출판된 참고 서적들 중에서 몇 권을 소개합니다.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윤양석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샘 — 영성 수련을 위하여 앤소니 드 멜로, 분도출판사편집실 역, 분도출판사.

성경과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에 의한 피정 토마스 버크,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역.

여섯 개의 길 G.허치슨, 차순향 옮김, 성바오로출판사(77-106쪽).

영적 성장과 내적 치유 J.J. 윌러, 박홍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성서와 영성수련 서인석 엮음, 성바오로 출판사

자, 겨울은 지나가고
장마는 활짝 건졌소.
산과 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접붙이는 때
비둘기 꾸르륵 우는 소리 우리 세상이 되었소(아가 2, 11-12).

‘즐거운 노래가 울려퍼지는 계절’이 막 시작되었다 ; 교회 어디서나 기도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겨울은 지나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돌아왔다. 즉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봄을 알리는 전령(傳令)들 가운데 옛 보금자리에 돌아와 등지를 트는 새들을 들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인간의 귀소본능뿐 아니라 창의적 충동이나 초월욕구의 상징이었다.

성서를 보면 비둘기를 인용하는 구절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아가에서 비둘기는 봄을 알려주고, 창세기에서 올리브잎을 물고온 비둘기는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준다(창세 8, 11).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비둘기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마르 1, 6).

첫째 권 「사랑」의 표지에 있는 한 쌍의 비둘기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상징한다. 둘째 권 「용서」의 표지는 하느님의 조건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한다. 이 셋째 권 「탄생」의 표지 도안은 이 세상을 떠다니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하느님의 창조적인 성령을 상징한다.

비둘기는 부른다 ;

“나의 귀여운 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갔어요”(아가 2, 10-11).

표지는 미네소타의 인기 화가인 캄벨(Donna Pierce Campbell)이 도안하였는데 그 아름답고 싱싱한 양식은 이 기도 안내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채신의 성령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 기도 안내서는 지난 여러해 동안 미네소타 북서부 전역에 걸친 본당 쇄신 피정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목격한 영적인 목마름에 자극을 받아 펴내게 되었다.

신자들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안내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교회의 영성적 전통의 중요한 자료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평신도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이 전통 중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보배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16세기의 평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기 위해 쓰여졌는데 최근에 와서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영신수련은 성서, 내적 쇄신 및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꼭 부합된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영신수련의 양식을 본당 쇄신 피정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개인 기도와 생활 환경을 연결시키면서 평신도들의 필요, 언어 및 생활 양식에 걸맞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탄생」은 주여 니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세번째 책이다. 각각의 책들은 알맞은 성서 구절들과 그에 관한 해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도 안내들을 담고 있다. 각 권의 주제는 영신 수련의 각 단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만 각 권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시리즈의 첫째 권 「사랑」에서는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에 들어 있는 주제들을 사용하였다. 그 주제들은 인간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모든 피조물에 대한 공평성, 그리고 투신 등이다. 「사랑」에서는 하느님의 사랑 및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등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둘째 권 「용서」는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첫째 주간과 관련된다. 첫째 주간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개인과 인류 전체의 죄스러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죄와 죄인의 문제를 고찰한다.

셋째 권 「탄생」은 예수님의 성령을 구현시키는 인생 여정에서 각자에게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삶이 지니는 심오한 의미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하시는 동안 스스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지상 삶을 관상하도록 우리는 초대받았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깊은 뜻을 명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속으로 그렇게도 완전하게 들어 오시는 하느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를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 우리의 가슴속 깊이에는 있는 바람, 즉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겠다는 간절한 바람에 단호하게 응답하라는 은총의 부르심을 우리는 체험한다.

본 기도 안내서는 개인 지도를 복돋아 주기 위하여 특별히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작은 모임에서 신앙을 나누는 지침서로도 이용될 수 있다.

본 시리즈는 영신수련이나 그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본 시리즈는 다만 영신수련에서 발견되는 회심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동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예의 접근 방법을 발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섭취하고 그분의 각별한 사랑을 체험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갖고 계시는 독특한 계획을 의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해설과 기도 안내에 성(性)의 구분이 없는 말을 사용하려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한 이러한 변경에 마음이 상할지도 모를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서 구절의 말들을 고치는 것을 삼가하였다.

우리는 본 안내서를 사용하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 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에페 1, 17-19).

1985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제클린 시럽 버간 & 마리아 슈완 수녀

기도 안내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루가 11, 2)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이다.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이신 그분께 응답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제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A. 매일기도 양식

기도할 때마다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1. 준비

- + 매일기도 시간을 최소한 2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잡도록 한다. 60분이라는 시간에 어떤 “신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도에 몰입하는 데에는 대개 한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 + 전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그 다음날의 성서 구절과 해설을 미리 읽는다. 잠들기 바로 전에 성서 구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2. 기도 시간의 짜임새

- +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넷을 셀 동안 숨을 멈추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 +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 + 하느님께 당신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 + 당신이 선택한 성서 구절을 내용에 알맞는 방법으로 읽고 반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적인 구절이나 이야기 형태를 취하지 않은 구절은 묵상(默想)을 하고, 이야기 형태를 취한 구절이나 사건에 관한 구절은 관상(觀想)을 하십시오.
(23쪽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 예수님이나 하느님 아버지와의 담화(談話)로써 기도를 마치십시오.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3. 기도 후 반성

기도 후 반성은 기도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성찰이다. 기도 시간중에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존하셨는지를 보다 깊이 깨닫는 것이 이 반성의 목적이다.

기도 후 반성 시간에는 주로 기쁨, 평화, 슬픔, 두려움, 갈등, 분노 등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 안에 드러나는 위안이나 쓸쓸함의 내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인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구한 은총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 기도 후 반성 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기도 후 반성을 영적 일기에 적음으로써 우리는 인격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일기는 우리의 영적 여정(旅程)의 귀중한 기록이다. 영적일기의 기록은 우리의 자아

완성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영적 지도자나 영적 반려자가 없는 경우 영적일기의 기록은 기도를 평가하고 명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경우 영적일기의 기록은 자신의 기도 체험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준비 자료가 된다.

기도 방법: 매 기도 시간 이후 공책이나 영적일기장에 날짜와 그 날의 성서 구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의 질문들에 답을 해 보십시오:

- + 특별히 나의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나 구절이 있었는가?
- + 나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 평화스러웠는가? 사랑을 느꼈는가? 슬펐는가? 실망했는가?
- 이러한 느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 +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느끼는가?
- + 다음에 기도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점이 있었는가?

B.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

성서를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사람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는 기도 방법이 다르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마침내 특별한 성서 구절에 적합하고 우리의 개성이나 필요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본 안내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1. **묵상:** 묵상 시간에는 마치 연애 편지를 대하듯이 성서 구절을 읽는다; 이 방법은 시적인 성서 구절을 기도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된다.

기도 방법 :

- + 성서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크게 소리를 내어 읽든가 속삭이는 소리로 읽으면서, 성서 말씀이 당신을 감싸도록 하며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 + 특히 당신의 관심을 끄는 부분에 머물면서, 마치 매마른 땅이 비를 받아들이듯이 그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 + 한 단어나 구절을 되뇌이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느낌들을 감지하십시오.
- + 마치 사랑하는 친구의 편지를 읽듯이, 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합창노래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서 구절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2. 관상 : 관상을 통하여 우리는 성서 구절의 사건이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의 전 오관(五官)을 사용하여, 상상 속에서 성서 구절 안으로 들어간다.

신학자들은, 우리는 관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회상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세례 성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영(靈)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예수님의 영(靈)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어떤 신비를 상기시키시고 재생케 하신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 안에 빠스카의 신비를 재현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관상을 통하여 우리가 관상하는 특별한 사건을 재현하시며 그 신비 안에 현존하신다.

기도 방법 :

관상 기도 중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

- +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하십시오 ;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 + 그 신비의 일부가 되십시오 ; 그 현장 속의 한 사람의 역할을 맡으십시오.
- + 각 개개인을 잘 관찰하십시오 ; 각자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각자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 + 내가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나의 삶이나 나의 가족 또는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담화(談話)하십시오.

- +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 계십시오.
- +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십시오.
- +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되고자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하십시오.
- + 예수님께 응답하십시오.

3. 내심기도 : “내심기도 시간에 우리는 생각과 이미지를 초월하고,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 존재의 중심부로 내려간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내심기도는 대체로 말없이 행하는, 아주 간단하며 순수한 기도 방법이다 ;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내심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부까지 내려간다. 그 곳은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고요함의 장소이다. 내심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의존함을 인정하고 사랑의 성령께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겨야 한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께서는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고 외치신다.

기도 방법: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시편 46,10).

- + 조용히 앉아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으십시오.
- +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는 마음을 견지하십시오.
- +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다거나, 계단을 걸어 내려간다거나, 산을 내려간다거나,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보다 쉽게 당신의 깊은 자아의 중심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이십시오.

4. 만트라: 내심기도의 한 방법으로서 “만트라” 또는 “기도말”을 사용한다. 만트라란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구절일 수도 있다.

성서에서 따온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순간적으로 우리나온 말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 말이나 구절은 하느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우는 것이 만트라의 일종이다.

기도 방법: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만트라를 천천히 반복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은—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숨을 들이 마시면서

하고 뒷 부분은-이 죄인을 붙잡히 여기소서-숨을 내쉬면서 한다.

5. 묵상 독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하여 그 것을 받아 먹으니 마치 꿀처럼 입에 달았다”(예제 3, 2-3).

성서나 영적 서적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다.

영적 독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 아래의 방법은 특히 기도가 어렵거나 무미건조할 때 도움이 된다.

기도 방법: 영적 독서를 천천히 하면서, 가끔 독서를 중단하고 어떤 말이나 구절이 우리의 몸 안에 스며들도록 한다. 어떤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면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생각의 전부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한다.

당신 안에 받아들인 말을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하듯이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응답하십시오.

6. 영적일기: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에페 3, 4).

영적일기는 묵상의 기록이다. 우리가 펜을 들어 우리의 생각을 종이에 옮길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참된 자신을 드러낸다.

영적일기를 쓰는 것은 다른 기록들과는 차이가 있다.

영적일기를 씀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신선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며 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체험한다. 따라서 영적일기를 잘 쓰기 위

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 한다.

묵상 기록은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지나간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들이 더욱 강해지고 오랫동안 남아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적일기의 기록은 분노, 두려움, 또는 원한과 같이 드러나지 않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일기를 씀으로써, 우리가 읽는 성서의 말씀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기도 방법: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일기를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 a. 하느님께 편지 쓰기
- b.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기록; 다른 사람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 또는 가치와 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죽음, 이별, 지체 등을 의인화(擬人化)하여 그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다.
- c.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록; 예를 들면,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마르 10, 51) 또는 “왜 울고 있느냐?”(요한 20, 15).
- d. 예수님이나 다른 성서의 인물이 펜을 통하여 나에게 “말하게” 한다.

7. 반복기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겠다.” —성 이나시오 로올라—
반복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시어 일하시도록 지난 기도 시간

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반복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보다 잘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나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욱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우리는 반복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반복기도는 지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지난 번에 가졌던 대화를 회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하셨지요?”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반복-추후의 대화-을 통해서 첫 기도 시간에 느꼈을지도 모르는 슬픔이나 후회를 변화시키시는 치유의 현존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린다.

반복기도 시간에는 위로(기쁨, 따스함, 평화)의 느낌이 깊어질 뿐 아니라 쓸쓸함(고통, 슬픔, 후회)의 느낌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기도 방법: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기쁨이나 슬픔 또는 혼란을 두드러지게 체험한 때의 기도를 선택하여 반복한다. 아마도 기도 준비의 부족으로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의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 + 지난 번 기도 시간에 체험한 느낌들을 상기하십시오.
- + 출발점으로 지난 기도 시간에 가장 두드러졌던 장면이나 말 또는 느낌을 사용하십시오.
- + 기도 시간 중에 성령께서 당신 마음의 내적 움직임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C. 영적 훈련과 도움들

1. 의식 성찰: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원히 아십니다”(시편 139,1).

우리는 의식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현존하셨으며, 우리는 그날 하느님의 현존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발견하게 된다.

성 이냐시오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성 이냐시오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의식 성찰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의식 성찰을 통회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양심 성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의식 성찰은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환경, 감정들 안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기도 시간 후에 기도 후 반성을 하듯이 우리는 하루 생활이 끝난 후 의식 성찰을 한다. 의식 성찰을 매일 제대로 실천하면 하느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라나게 하는데 필수적인 완전한 균형을 얻게 된다.

의식 성찰은 다음을 반영한다: “인격적인 사랑의 역동적인 움직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고자 원하는 순서대로 말하고 싶어한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방법: 의식 성찰을 위해 다음의 기도를 제안한다.

이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을 영적일기에 함께 기록할 수도 있다.

+ 아버지 하느님, 저는 온전히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이며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나이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 주님, 당신은 시간을 통하여 시간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을 밝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일하심을 만나이다. 당신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꾸며주시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당신의 길에 놓는 장애물들을 보다 예민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소서.

+ 당신은 오늘 제 삶 속에 함께 계셨나이다. 이제 제가 다음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소서 :

오늘의 사건 안에 현존하신 당신……

제가 느꼈던 감정들 안에 현존하신 당신……

당신의 부르심……

저의 응답……

+ 아버지, 당신 사랑의 용서와 치유를 간청합니다. 제가 치유되기를 가장 바라는 오늘의 특별한 사건은……

+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으며 희망에 가득 차 제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며……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바라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에게 그 은총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을 굳게 확신하나이다.

2. 신앙 체험 나누기: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마태 18, 20).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핵심 문제에 대해 공동체원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야 한다. 그리스도 인들에게 이러한 대화란 신앙 체험을 나누는 것이며, 이것은 혼자서 하는 매일기도의 연장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 모임은 토론 집단도 아니고 감수성 훈련이나 사교 모임도 아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지적 또는 신학적 견해를 나누고 얻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다. 신앙 체험 나누기는 미리 설정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신앙 체험 나누기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집단으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여 몸소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이다(에페 4, 12).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앙 체험 나누기의 한 방법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 나누도록 우리를 부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체험 나누기는 공동체를 결속시키시는 힘이신 그리스도의 영(靈)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됨을 의미한다.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약돌이 떨어지는 풀장을 상상해 보라. 풀장 주위에 모여 있다고 상상하면서 회원들은 원형으로 모인다. 물 속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조약돌처럼 각 회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눈다. 모두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각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동심원들을 그리며 풀장의 가장자리로 번져나가는 물결처럼, 이 말씀들은 원 주위에 둘러선 각 사람의 마음속으로 사랑 안에서 확대되고 번져 나간다.

방법: 미리 약속한 장소에 일곱 명 내지 열 명의 회원이 모인다.

+ 지도자는 회원들에게 얼마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라고 초대한다.

이때 회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 지도자는 즉흥적인 기도나 미리 준비한 시작기도로써 침묵의 기도를 모은다.

+ 회원 중의 한 사람이 미리 정해서 각 회원이 혼자서 기도하며 묵상해 온 성서 구절을 읽는다.

+ 성서 봉독 후 잠시 침묵한다.

+ 지도자는 각 사람에게 성서에 나오는 한 단어나 구절을 함께 나눌 것을 초대한다.

+ 다른 회원이 그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그 후 잠시 침묵한다.

- + 지도자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서 구절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말해 주는지 -도전, 위로, 초대 등 -간단히 나누도록 초대한다.
- + 그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 + 회원들은 주님께 즉흥적인 기도를 바친다.
- + 지도자는 축복의 말이나 주의 기도 또는 성가로 신앙 체험 나누기를 마친다.
- + 헤어지기 전에 다음의 모임을 위한 성서 구절을 발표한다.

3. 기도 중의 상상(想像)의 역할

상상이란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되살리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이다.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면에 끌어 올려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의미의 여러 차원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보다 깊은 현실을 상징한다.

활력있는 상상을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완전성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활력있는 상상을 신앙의 자세로 기도에 이용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권능과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된다.

성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고 감각적인 영상들을 풍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기도할 때 활력있는 상상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효과가 있다.

성서 이야기를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4. 분심(分心)에 대한 대응책

기도 중의 분심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분심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두고 기도의 소재로 돌아가면 된다. 만약 분심이 계속되면, 그것은 분심의 대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결 상태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랑과 찬미의 기도

주 하느님, 당신의 사랑이 넘쳐 흘러

만물을 지으셨을 때

이미 당신은 저를 생각하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나이다.

오 하느님! 나의 마음이 항상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당신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을 찬미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봉사하는 힘을 제게 주소서.

주 하느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건강도 질병도

부(富)도 가난도

명예도 치욕도

장수(長壽)도 단명(短命)도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외의 그 어느 것도

구하거나 택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첫째 주, 첫째 날

침묵과 내어맡김

루가 1, 26-38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 하려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아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자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해설

“마리아께서는 14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셨는데, 나 역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13세기의 어떤 교구 신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설교가이자, 신학자이며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느님께서는 매순간마다 모든 창조물 안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신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우리는, “성탄 아침에 베들레헴에서 하느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차례이다.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성 수태고지(예수 탄생 예고)는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리아께서 이처럼 응답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아가씨는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마리아께서 자신 안에 심어진 하느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였을 때 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신을 내어맡기는 태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 본받아야 할 태도이다. 마리아의 내적인 침묵의 깊이는 그분 안에 잉태된 새로운 생명, 즉 인간이 되신 말씀을 위한 애정기쁜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모체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가 만약 성숙한 기독교인들로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를 바란다면, 마리아께서 보이신 모범을 본받아 침묵과 내어맡기는 내면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침묵을 지키며 내어맡길 때,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닌 독특한 표현과 힘이 솟아 날 것이다.

마리아는 두렵고 답을 알 수 없는 의문에 싸여 있었지만, 그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갔다. 창조는 내어맡길 때 이루어지며, 포기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기도 안내 : 공중에 떠다니는 성령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신비 앞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24쪽)

이 세상을 사랑으로 내려다 보시는 성삼위, 즉 창조주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한다. 싸움, 목적도 없는 강제적인 살인, 약물 중독, 가난 그리고 수많은 남녀들이 겪는 절망들을 바라본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부와 자원을 조종함으로써 생겨나는 부정을 바라본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모든 종류의-을 바라본다.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 늙고 쇠잔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 눈물로 가득 찬 사람들, 행복감으로 기쁨에 젖은 사람들, 절대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과 동정을 내 마음속에서 상상한다.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이 세상 위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둠 위로 움직여 오는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하느님의 힘찬 성령의 힘이 이 사랑을 통해 불붙는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다. 눈먼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 하시어 완성으로 이끄시도록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시간이 되었다. 비밀스럽고 신비에 가득 찬 하느님의 계획이 이제 막 탄생하려고 한다.

하느님의 선견지명을 갖고 바라본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께 접근하는 것을 관찰한다. 하느님과 함께 마리아의 대답을 기다린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3권

+ 마침기도

온 인류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그분의 동정어린 사랑에 깊이 감사함을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말씀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첫째 주, 둘째 날

하느님의 완전한 선물

루가 1, 26-38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 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아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자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해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성서에 나오는 목격자들도 흔히 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풀이하여 “그는 누구인가?”(루가 7, 49:9, 9)라고 묻는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깜짝 놀라, “이 사람은 누구인가?”(마태 21, 10)라고 묻는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모든 신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든 신학적 그리고 지적인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의적인 설명에 만족하지 못한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며, 체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을 표면에 드러내주는 촉매작용을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상황과 구조적·도덕적인 붕괴 그리고 갈등에 싸인 문화 속에서 이 질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질문이다.

예수는 누구인가?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메시지와 정신을 소개하려고 노력한다.

‘기쁜소식’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사실이다(로마 10, 9). 루가 복음 1장 26-38절에서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역할과 신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의 구절은 대단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절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천사가 찾아오고,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이는 마치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담아 짜여진 중세기의 용단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얽히고설킨 복잡한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겨 이 구절이 지닌 본래의 의도와 중심적인 초점을 놓치고 만다.

독자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루가의 의도가, 이 구절의 모든 면이 예수님은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주님이시라는 중점을 분명히 밝히고 입증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이 천사는 예수님의 선두자인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즈 가리아에게 알려 준 똑같은 대천사 가브리엘이다(루가 1, 11 이하).

루가는 요한과 예수의 사이에 있어서 대응이 되는 점을 날카롭게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수태고지 사화에는 비슷한 점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구약성서에 나타나 있는

전통적인 수태고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수태고지에서도 천사가 출현했고, 두려움을 체험했고, 하느님의 메시지가 있었으며, 이의를 제기했고, 증표가 주어졌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증표는 잉태와 탄생이다.

루가는 예수님의 잉태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을 요한의 탄생에 비교하여 예수님 탄생이 범상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요한과 예수의 이야기들 사이에는 유사점들이 있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그분들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반면에, 전통적인 상황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장 함축성이 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예수님이 잉태되신 방법과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룩하실 일들에 대한 묘사와, 그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모습이 특이한 면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우리들 희망의 탄생이다.

기도 안내 : 천사의 메시지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신비 앞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나 자신이 마리아의 집에 있는 것으로 상상해본다. 시간, 가구, 색깔, 냄새,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히 알아채게 된다.

마리아 자신, 또는 이웃이나 친구인 관찰자 역할을 한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려본다. 요셉과의 결혼식을 앞둔 그녀가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느끼는지 상상해 본다.

가브리엘 천사를 머리 속에 떠올리며, 그녀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가 나누는 대화에 참여하여 나 자신이 겪고 있는 두려움, 의구심 그리고 놀라움을 함께 나누어 본다.

가브리엘 천사가 안심시키는 말들로 마리아에게 전하는 소리를 조심스럽게 듣는다. 마리아가 그녀 자신을 내어맡길 때 나도 그녀와 함께 한다.

+ 마침기도

나도 마리아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경이와 찬미 속에서 머문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첫째 주, 셋째 날

새로운 창조

루가 1, 26-38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 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아담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해설

아이를 못 낳는 부모에게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기적도 유대인 사회에 경악과 놀라움을 주었는데, 동정녀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더더욱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놀랄 만큼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창조 때에 현존하셨던 하느님의 성령이 다시 활동을 하신 것이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 1, 2).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창조적인 성령으로 보호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며, 그녀의 내면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산란시키는 상상들이나 헛된 우상들에 구속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비어 있는 순수함 속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것이다. 조용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녀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느님의 창조적인 활동에 맞게 그녀는 투명하게 맑은 상태였다.

예수님을 잉태하신 동정녀의 임신에 관해서 그 어떠한 생물학적 또는 성적인 의미에서의 암시적인 해석은 절대적으로 부적당하며 근거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페이아르트 샤르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현신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우선 무엇보다도 그분을 우리에게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덕성을 이 세상에서 높이 들어올리셔야 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인간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해줄 어머니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창조하셨다. 즉 그분은 이와 같은 투명함 속에 당신 자신을 농축하시어 어린아이로 나타나실 만큼 지대한 순수성을 이 땅에 불러일으키신 것이다.”

위의 구절에서 루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이 꾸며진 것이다.”

“이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과 보호하는 성령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 산상에서 변모하셨을 때를 연상시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으며 우리는 창조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마태 3, 16-17; 마르 1, 10-11; 루가 3, 22).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으며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 5; 마르 9, 7; 루가 9, 34-35).

루가는 초대교회의 깊은 신앙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성령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인간이 되신 처음 순간부터 예수님은 진실로 하느님의 아
들이었다.

예수님은 놀라운 창조이다. 이것은 더이상 인간이 부탁을 드리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너그럽게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꿈꿀 수 없는 하느님의
자발적인 행위이다.

기도 안내 : 내어맡김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신비 앞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내심기도와 만트라 : 25~26쪽)

아주 조용히 그리고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상상들과
분심이 사라지도록 한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당신 위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어 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들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한다. 하느님의 창조적인 존재가 나 자신을 덮으신 것으로
상상한다. 이 성령의 존재가 내게로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3권

이 성령에게, 마리아께서 자신을 내어맡기실 때 하셨던 대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말을 기도말(만트라)로 사용한다.

+ 마침기도

나도 마리아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경이와 찬미 속에서 머문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첫째 주, 넷째 날

기쁨의 용약

루가 1, 39-56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즈가리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종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에 내 태종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해설

두 어머니가 만난다. 그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자, 기쁨으로 힘이 솟아난다.
예수와 요한이 만난다. 요한은 어둡고 따뜻한 그의 어머니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논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남으로써 예수와 요한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 구절이 지닌 근본적인 초점은 이들의 만남과 그 만남의 의미이다.

예수와 요한의 태중의 만남을 대비해서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선례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서로 다투는 사이로서 이미 그 때부터 일생에 걸친 그들의 관계가 지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창세 25, 22).

요한과 예수가 태중에서 만난 것도 역시 예언적이다.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우정의 기쁨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명을 함께 수행하도록 그들을 단결시킨 역할도 한 것이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사실에도 어떤 것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 성서에서 기독교 성서로의 교량 역할이 아니라 낡은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의 연장을 위한 교량 역할이다.

히브리 성서의 희망이 예수님의 현존으로 인해 요한의 기쁨 속에서 완성된 것이다(요한 3, 29).

요한이 모든 인류가 빛을 받아들이도록,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일깨워 준비시키려는 열망을 갖게 하는 근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요한 1, 7-8).

마리아께서는 이 예수님의 현존을 요한에게 데려간 것이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시다가 이 세상에 거룩한 존재를 탄생시킨 것이다. 만약 우리도 이 존재를 몸 속에 지니며, 그 거룩한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면, 마리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된다.

“그렇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는 복되도다.”

마리아께서는 믿고 있었다.

마리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특성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하느님을 순종적으로 믿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필요로 했을 때 그들에게 그러했듯이, 하느님의 초대에 주의깊게 따랐으며 순종했다.

그녀의 일생은 완전한 봉사와 사랑의 삶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내부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용감히 그 말씀에 따랐으며 그것을 믿었다.

그녀는 ‘하느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을 신뢰하는 하느님의 신뢰 속에서’ 살았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예수님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루가 8, 21).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일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징표일 것이다.

하느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곳은 어디에고 모셔다 드리는, 마치 날개가 달린 듯한 그분의 충동적인 사랑에 우리는 재빨리 순종해야 한다.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엘리사벳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감동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보여 주는 무슨 특별한 아름다움이나 힘으로써가 아니라, 새싹이 빛의 존재를 알듯이 우리 자신의 내면이 열리며,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은 항상 경축할 일이다. 루가 복음에서, 마리아께서는 초대교회가 사용한 찬미가를 노래한다. 한나처럼(1 사무 2, 1 이하)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권능과 자비를 찬송한다. 이와 같이 혁신적인 찬가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또는 영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찬양을 받으신다.

우주의 조화 속에서 삼라만상이—과거, 현재, 미래에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원래의 약속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께 대한 축복을 노래하며 경축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께서는 위대한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성령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신 것이다.

기도 안내 : 침묵과 기쁨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방문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간다. 따뜻한 액체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긴장을 푼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분이 걷는 울동을 느낀다.

나의 생명이 오로지, 바로 그분 심장의 고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창조와 일치를 이루는 이 성스러운 공간을 즐기며 쉬도록 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로부터 인사를 받을 때 요한이 느낀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녀 안에서 따뜻하게 빛나며 나의 어머니와 나를 감싸고 있는 빛으로 그녀의 말들과 그리스도의 현존을 상상해 본다. 예전에 지녔던 모든 이미지들을 그냥 놔두고, 공간과 침묵과 그리스도의 현존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며 응답한다.

+ 마침기도

마리아와 함께 머물며 기쁨과 감사와 경이와 찬미를 드린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마니피캇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는다.

+ 기도 후 반성

영적일기에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응답을 적는다.

첫째 주, 다섯째 날

시간을 초월한 탄생

루가 2, 1-14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 보는 표이다”하고 말하였다. 이 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해설

“들으시오, 나는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크게 기쁨이 될 소식은 그리스도의 탄생, 즉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느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것을 알아보는 곳에서는 어디에서건 끊임없이 경축되는 온 우주의 기쁨이다.

이 탄생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것은 “이 땅의 한끝에서 다른 한끝으로” (지혜 8, 1),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이른다.

그리스도께서 때맞추어 오신다는 사실은 이 탄생이 초시간적임을 알려준다.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 오심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즉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신(묵시 22, 13) 주님과와의 집중적인 일치로 모든 창조물들을 자석이 끌듯이 이끄는 것을 뜻한다.

모든 세대들 그리고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열망과 희망을 지님으로써 그분이 오시는 일에 참여했으며,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는 이 우주적인 의미는 루가가 성탄절 이야기를 묘사한 것에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역사와 예언과 상징들을 노련하게 집대성한 것이다.

루가는 그의 이야기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내린 호구조사로 시작하고 있다. 이 복음사가는 호구조사를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등록을 하려고 모여드는 사실을 통해 루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해 준다. 강압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이 호구조사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평화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우구스토는 군사작전을 통해 로마제국 전역에 불확실한 긴장 완화를 이룩하였다. 루가는 아우구스토가 제공한 거짓된 안전과 그리스도의 진실한 구원의 힘을 대조시키고 있다.

로마제국의 정치적인 책략은 유대 인들에게서 힘과 자유와 기쁨을 훔쳐갔다.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탄생은 아우구스토가 조심스럽게 이루어 놓은 그 당시의 신분 계층을 혼란에 빠뜨렸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과 권력은, 그릇된 권력에 근거를 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벌거벗기는 종류의 것이었다(루가 22, 25).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향해 결정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었다. 마치 낡은 술부대들처럼, 낡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새로움을 간직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다.

이 새로움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그녀는 그를 아기웃으로 둘둘 말아쌌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다. 마리아께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포대기로 둘둘 감아 단단히 싸는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했다. 그렇게 포대기로 둘둘 감는 첫째의 목적은 조그만 수족을 똑바르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것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도 연관이 있다.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포대기에 싸여 모든 보호를 받았으며 양약을 받았다. 그 어느 왕도 그의 인생을 이처럼 시작한 사람은 없다”(지혜 7, 4-5).

“그녀는 아기를 구유에 눕혔는데, 그 이유는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은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던 것이다. 루가는 예레미야가 하느님을 향해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하였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며, 절망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신 야훼여, 왜 이 땅에서 마치 이방인과 같으시며 하룻밤만 묵고 가는 여행자와 같으십니까?”(예레 14, 8).

여관은 이방인이나 여행자가 어떤 곳을 지나면서 짧은 기간 동안, 필시 하룻밤만 묵고 가는 곳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머무시려고 오신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집을 삼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일반적으로 주거나 가축우리로 사용되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뉘여졌다고 루가가 말하는 구유는 다음의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소는 누가 자기의 주인인지를 알며 당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주님과 주인을 알아보는 능력은 오직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만 일어나며, 그 깊은 내면에서 우리는 존재의 근원과 만나며 접촉한다.

동굴과 짐승이 갖는 상징성은 모든 것이 탄생되는 진화론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자궁과 같은 바로 이 원시적인 장소인 동굴과 짐승들 가운데가, 하느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알아보려고 오는 곳이다.

자연과 동물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그들 인생의 중심인 목동들이 바로, 기쁨의 노래를 듣게 될 최초의 사람들이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이름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최초의 사람들이다.

상실감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오시며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변형하시는 것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노래로 가득 채워진 바로 그 사람들이다.

기도 안내 : 동굴 안에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본다.

마리아께서 불편해 하시고, 요셉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아본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동굴로 들어간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스스로 몰두하여 체험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의 탄생에 참여한다. 이 사건이 주는 놀라움 속에서
기뻐한다.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을 열어 이 사건이 주는 기쁨을 흡수한다.

+ 마침기도

마리아와 함께 머물며 기쁨과 감사와 경이와 찬미를 드리며,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첫째 주, 여섯째 날

반복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28쪽의 반복기도를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의 영적일기를 읽으면서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슬펐던 또는 기뻐했던-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그때 큰 감명을 받은 장면, 말씀 또는 느낌에 초점을 두면서 전에 했던 그대로 되풀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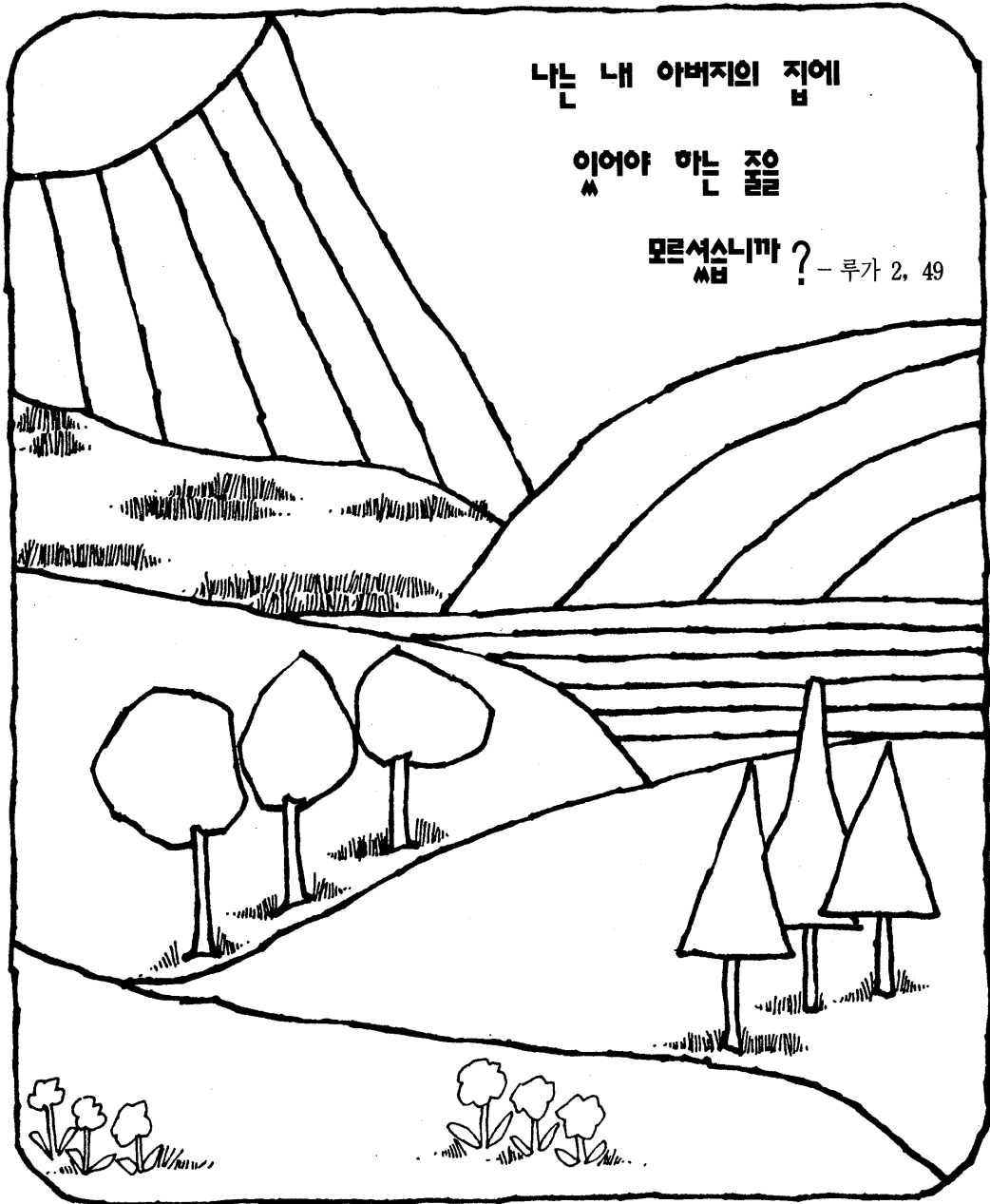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떠오른 모든 내적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이어야 하는 줄을

모르십니까? - 루가 2, 49



둘째 주, 첫째 날

기다림의 끝

루가 2, 22-39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 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 부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써 하느님을 섬겨 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해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의 절정을 보여 주려고, 반 투명한 배경에 자세히 설명된 풍부한 내용을 담은 ‘색 유리에 그려진 이야기’이다.

우리는 베들레헴의 동굴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인 동굴로부터 희생의 장소인 성전까지 여행을 한 셈이다.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깊은 신앙과 성취의 체험이 이 복잡한 구절 속에 담겨 있다.

우리는 구약 성서의 내용을 담은 화려한 풀라쥬, 유대 인 종교의식, 시, 예언, 그리고 기도를 관상하도록 초대받은 것이다. 루가는 인간이 겪어온 모든 체험들을 가늠해 보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와 아기의 부모인 젊은 부부와 현인 남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루가의 능란한 예술적 솜씨를 통해서 우리도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체험하고 있으며, 아기 예수의 신분과 운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인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쇼울 밑에서 따뜻한 체온을 전해 오는 아기를 안고

그 아기 외엔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는,

육마일 길을 오느라 먼지에 덮힌 한 여인이었다.

율법의 참뜻에 복종하는 마리아는 첫아들을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기를 낳은 후에 모든 여인이 행해야 하는 정결의식을 바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첫아들을 봉헌하는 것은, 사람이든 농작물이든 처음 나는 것은 하느님의 사업에 속한다고 믿는 유대인의 신앙을 의식화한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의 첫아이들을 살려주신 것을 상기하게 한다(출애 13, 11-16).

마리아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모든 사람들과 일치하여, 이 세상의 중심부들 중의 하나인 성전으로 돌아왔다. 순종적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맡기어 변형적인 탄생에 기여하려고 칩거했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정결의식(레위 12, 1 이하)을 치르기 위해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된 것이다.

이제 마리아께서는 동정녀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도로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성전 안에는 하느님께 봉사하며 한평생을 지낸 나이든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 나라 안에서 온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조용히, 참을성 있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이사 40, 1 이하).

시므온은 마리아의 팔에서 아기 예수를 받아 안았다. 그것은 노인이 아기를 안은 것이었지만 사실은 아기가 노인을 안은 것이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시편 130, 6)도 더,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새로운 날이 오고 있음을 이 아기에게서 알아보았다. 그의 기다림은 끝났으며, 약속은 이루어졌다. 시므온은 기쁨에 잠겨,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기쁘게 내어맡긴 시므온은 진정한 예언자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가져오실 때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선언하였다.

예수님은 잘잘못을 가려 판단하는 칼과 같으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시므온은 가차없이, 모질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이 부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시므온의 예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만나게 된다. 아기 예수의 눈을 들여다 본 시므온은 죽음의 그림자와, 재개된 창조의 영광을 동시에 보았다.

안나도 시므온과 함께 이 예언에 동참하고 있다. 시므온이 한 말들과 루가의 이야기 끝에 나오는 이 나이든 여인의 생애는 하나의 예언 그 자체였다.

그 날이 드디어 왔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들어오셨다. 이 분이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리라(요엘 3, 1; 사도 2, 17).

기도 안내 : 성전 안에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의 아들, 예수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성전 안에 함께 있다. 성전 내부를 자세히 상상해 본다. 출입구, 벽들, 기둥들, 제단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는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 본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참여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깊게 듣는다. 각자의 표정과 몸짓을 바라 본다. 나의 마음에 내키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응답한다.

+ 마침기도

마리아와 함께 머물면서 기쁨과 감사와 경이와 찬미를 드린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느낌들과 이해한 것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둘째 날

찾아다님

마태오 2, 1-12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 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해설 :

‘반짝이는 별, 반짝이는 별, 오늘밤 내가 제일 처음 본 별…….’

여러분은 저녁 때 처음 떠오른 별을 보고 어린 시절의 소원이 담긴 이 동시를 아직도 노래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못할지라도, 동심으로 돌아가 이 동시를 노래하리라.

이 동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소원인 거룩한 아기를 찾으려고 별을 따라갔다. 별이 지닌 상징은 본질적으로 모든 시작, 즉 탄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시인들과 물리학자들은 태초에 에너지가 농축되어 별들이 엄청난 힘으로 폭발하여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자기력은 계속 생명을 주며, 또 생명을 바르게 정돈한다. 우리는 모두 이 우주활동의 일 부분이며, 그것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안에는 시작을 내포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많은 남녀들이 그들 존재의 원천에 관련하여 별에 대한 관상을 해왔다.

동방박사들은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고 있었다.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에 속해 있으며 점성가인 그들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기다려왔던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다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자연 현상-별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왕을 찾아가는 데 자연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예언에 관해 아는 바가 있어서, 좀더 분명한 지식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갔다.

헤롯 왕에게서 불림을 받은 그들은 유대교와 공식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헤로데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적수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살생한 사악한 인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의심이 들고 위협을 느낀 헤로데는 새로운 왕을 향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 왕을 열망하는 것처럼 꾸몄다.

아이러니하게도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지식을 헤로데의 어두운 마음으로부터 구한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헤로데는 동방박사들을 새로 태어난 왕에게로 데려다 주는 하느님의 도구가 된 것이다.

유대인들의 종교관이 공허한 형식주의와 무감각으로 빠진 반면, 유대인들의 예언에 열광한 사람들은 바로 이교도인 동방박사들, 즉 이방인들이었다.

예루살렘을 떠난 박사들은 그들의 별이 다시 나타난 것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 별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아기에게로 박사들을 인도하여 갔다.

아기를 보자마자 그들은 믿었다. 마침내 찾아다닌 아기를 발견한 그들은 그들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칭하던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는 어느날엔가 그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표시로 그의 십자가 위에 적혀지게 되어 있었다(마태 27, 37).

마침내 자기들의 생명을 걸 만큼 값진 왕을 발견한 그들은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고서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바쳤다.

이 동방박사들은 미래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이방인 나라들의 선두주자들이었다(마태 28, 19).

그들의 별을 믿은 박사들은 그들이 예수에게서 발견한 보물의 힘으로 새로워졌으며 생명에 넘쳐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기도 안내 : 별을 따라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나 자신이 동쪽의 기름진 푸른 계곡에서부터 사막을 거쳐 팔레스타인을 따라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동방박사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비로운 별을 알아본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새로 태어난 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우리는 계속 별을 따라간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는 집에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을 살펴본다.

어머니와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눈여겨 본다. 이 아기가 바로 내가 찾고 있었던 아기임을 알아챈다. 아기에게 내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보물을 바친다.

+ 마침기도

마리아와 함께 머물며 기쁨과 감사와 경이와 찬미를 드린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나의 응답들과 마음의 선물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셋째 날

이집트에서의 귀환

마태오 2, 13-23

박사들이 물러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일러 주었다.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 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증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져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해설

이 구절에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제목은 ‘이집트로의 피난’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첫째 주제인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계획을 보다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귀환’이다. 이 구절은 풍요로운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이 위험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얼마나 끊임없이 그리고 활기있게 존재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 그 어떤 일도, 그것이 아무리 그릇되고 악의로 저질러진 일이라 해도, 하느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리의 하느님은…… 인간 역사의 범주 내에서 활동하시며, 인간사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이 세상의 고통에 무감동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이 음울한 역사 안에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동정심이 많고 자비로운, 간단히 말해 인간의 얼굴을 가지신 하느님이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이며 하느님이신 예수의 생애에 있었던, 앞에 소개된 성경 구절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두 가지 큰 사건인 출애굽과 바빌론에서의 유배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을 이집트로 옮기고 그 후 나자렛으로 귀환시키는 사건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전의 경험을 되풀이하여 요약해 준다.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 인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의해 어떻게 이집트 집권자들의 압제를 벗어났으며 홍해를 거쳐 약속된 땅으로 인도되었는지를 회상하고 있다.

또한 바빌론에서의 망명에 대해서도 그들은, 유대 인들이 바빌론의 낯설은 땅에서 피난민으로 보낸 칠십 년을 기억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풀려나게 해주시고 이교도 왕인 씨루스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있다.

이 예외적인 사건들로 인해 겪은 인간적인 고통들은 두 번의 큰 시련이었으며 하느님

께서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갖는 관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 관심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일 적에도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미래에 맞게 될 고통과 부활을 예시해 준다. 예수님은 그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집트로 피난을 가도록 내쫓기시었다. 그리고 사랑이시며 친절하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조상들을 훈련시키시고 다시 부르셨듯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하셨다.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였다’(호세 11, 1).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원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마태오는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시켜 예수님의 신분을 하느님의 아들로써 불가사의하게 밝히고 있다.

아기 예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신 하느님의 중재는 헤로데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 어린이들을 죽이도록 가증스럽게 명령하도록 만들었다. 이 학살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파라오의 명령으로 일어난 히브리 어린이들의 학살을 상기시켜 준다(출애 1, 15-21).

그 비통스러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애통은 창자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의 울음소리를 다시 듣는다. 망명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귀양길을 떠나기 전에 라마에 있는 그녀의 묘지에 모이곤 한다.

마태오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힘과 현존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이끌어 준다(마태 1, 23).

예레미야의 말들은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겪으신 대단히 큰 고통을 기억하게 해주는데, 그 고통은 하도 커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내면의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며,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고 변화가 가능하도록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로부터 얻게 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 즉 죽음과 부활이다.

마태오의 청중들인 초대 유대 그리스도 인들은, 라헬의 비탄 뒤에는 위안이 약속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

애타운 보람이 있어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나는 한 번도 잊은 일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세상에 없던 일을 나는 하리라……(예레 31, 16. 17. 20. 22).

이 이야기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구약성서에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인간사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열병이 치료되며 또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역사적인 시대에서 잃어버린 약속과 가능성이 이제 다시 발견되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우리 자신의 이야기들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서 초월되며 그리고 그에 의해서 변화된다.

기도 안내 : 요셉과 함께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나는 요셉의 동반자가 되는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헤로데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경고를 받은 요셉의 꿈이야기를 요셉으로부터 주의깊게 듣는다.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 길고도 험난한 탈출을 하면서 겪은 사건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을 듣는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나자렛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 때 그들이 느낀 크나큰 안도감과 기쁨을 나와 함께 나눈다.

+ 마침기도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기쁨과 감사와 경이와 찬미를 바친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내가 체험한 모든 느낌들, 특히 새로운 생활 속에 나타난 개인적인 고통을 상기시켜 주는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넷째 날

예수의 소년 시절

루가 2, 51-52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해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골로 3, 3).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자렛에서 생활한 기간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생애’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신 후 임무를 수행하시기에 알맞게 그분을 형성시키고 준비시켜 준 성장과 발달의 기간을 말한다.

복음서에는 그분의 인격 형성기에 대해 약간의 언급이 있을 뿐이다. 그 기간 중의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생활하셨던 문화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성서 이곳 저곳에서 수집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루가 복음 2장 51-52절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께 순종하며 생활한 예수님의 평범한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영성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어른으로 서서히 성장하신 점은 그분의 가정이 사랑과 규율, 기도와 노동이 잘 어우러진 균형에 기초를 둔 건전한 가정이었던 것을 암시해 준다.

이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를 관상해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전체적인 생애와 사명을 형성해 준 제일로 근본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었던가를 추구하게 된다.

선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받아들여온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미지들은 불행하게도 균형이 잡힌, 진정한 영성적 발달을 이룬 예수님의 이미지에는 부적절하며 또한 방해가 된다는 것까지 증명되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들에는 ‘마분지로 만들어진 거인’ 으로부터, 쾌활하고 ‘상냥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것들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참 모습에서 멀리 떼어놓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체험에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도 하셨다. 인간들의 체험은 바로 그분의 체험이기도 하였다.

그분 역시 살아 있다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삶이 수반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셨다. 그분도 우리처럼 살아가는 일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에 고심하셨다. 그분 역시 잔치와 좋은 음식을 즐기셨고, 친구들을 좋아하셨다. 그분이 가나의 잔치에서 춤을 추셨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관념이나 학설 또는 강령이나 원리 원칙이 아니다. 그분은 한 개인으로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권위를 지닌 구체적인 하나의 인간이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른 인간(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채택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그분 자신이 살아가신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해답을 마련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분의 인간됨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그분의 말씀들, 행위들, 고통들, 기쁨들—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관상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인생 속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러한 그분의 인생에 대해 근본적인 자세를 본받도록 결정할 수 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하는가에 대한 비밀은 나자렛에서 보내신 예수님의 평범한 생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얼굴은 가리워지지 않은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더욱더 영광스럽게 됩니다”(II 고린 3, 18).

기도 안내 : 나자렛 방문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나자렛에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분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들의 생활 중 어떤 날을 머리 속에 떠올리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나이의 예수님을 상상한다.

나는, 조그만 집의 구석구석을 바라본다…… 요셉이 만든 가구들, 마리아의 부엌, 예수님께서 자기 물건을 두는 선반……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을 돕는 것을 지켜본다.

마리아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를 맡는다.

식사 때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이 가족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들을 바라본다. 예수께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바라보며, 오가는 말소리를 듣는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족 한가운데서 생활하시는 것을 계속 관상한다.

+ 마침기도

저녁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부모님과 합류하여 나의 기도를 끝맺는다.
더불어 내 자신의 기쁨, 감사, 경이 그리고 찬미를 바친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은 생활'을 체험할 때 떠오른 감정들이나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다섯째 날

소년 예수를 찾음

루가 2, 41-50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열두 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 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듣지 못하였다.

해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를 사흘이나 애태워서 찾으셨다.

예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년 예수가 한 첫마디 말이었다. 처음으로 발한 이 언설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공언하고 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를 ‘오래 기다렸던 분’이라고 기쁘게 선언했었던 것처럼, 이 때

까지는 그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밝혀 주었었다.

젊은이가 성전에 남아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과월절과 같은 명절이 끝나갈 때즈음, 산헤드린(최고 율법학자 회의)은 공개 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예수는 필시, 오고가는 대화에 매혹되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지닌 젊은 지혜를 설명 하기도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 예수의 '지혜'가 연장자들을 감동시킨 것이 명백하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도 그는 아버지로서의 하느님과 의 독특한 관계를 깨닫고 있었으며, 그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사명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예수가 자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임을 처음으로 공언하고자 선택한 장소가 성전이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젊은 예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꿈에 사로잡혀서 추구와 도전과 창조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께서 근심을 나타내셨을 때 예수가 한 대답은 그가 우선 적으로 그의 꿈, 즉 그에게 주신 하느님의 뜻을 이룰 것을 공언하기로 결정했음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초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그의 의지를 나타내 준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거쳐하시는 곳으로 가는 길을 찾았는가?

앞의 성서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분께서 하느님 아들로써의 사명으로 가득 차서 그것에 깊이 전념하시는 덕분에,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의 꿈을 '확장된 나 자신'에 충실하도록, 즉 우리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독특한 관계를 발견하여 우리가 지닌 특별한 사명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몰두시키는 것이다.

‘하느님 안에서의 나’로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현실에 맞추어 살아나가려면—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우리 역시, 나 자신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부터도 오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인생의 가장 한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며, 끊임없는 기도와 용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 주셨던 것과 똑같은 희망을 전달하신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이미 뜻을 세웠다. 나 야훼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나를 부르며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예레 29, 11. 13).

기도 안내 : 꿈을 나누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의 부모님과 함께 소년 예수를 찾아 해맨다. 그들이 마음을 죄며 걱정하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를 성전에서 찾은 그들이 안심하는 것을 바라본다. 성전 안에 펼쳐지는 장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바라본다. 성전과, 그리고 연장자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을 바라본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다가가 질문하는 것을 지켜본다. 특히 예수가 한 대답에 각별히 주의한다. 그의 말과 어투, 그리고 그의 자세에 얼마나 강한 확신이 들어 있는지 알아 본다. 그를 채우고 있는 사랑과 격려와 북돋우는 힘을 나 자신도 흡수한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과 꿈을 마리아와 예수와 그리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함께 나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게 방향을 제시해 준데 대해 그분께 감사한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지금 막 처음으로 기도문을 들은 것처럼 주의 기도를 천천히 바치면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떠오른 꿈과 열망, 그에 따르는 나의 감정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여섯째 날

반복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28쪽의 반복기도를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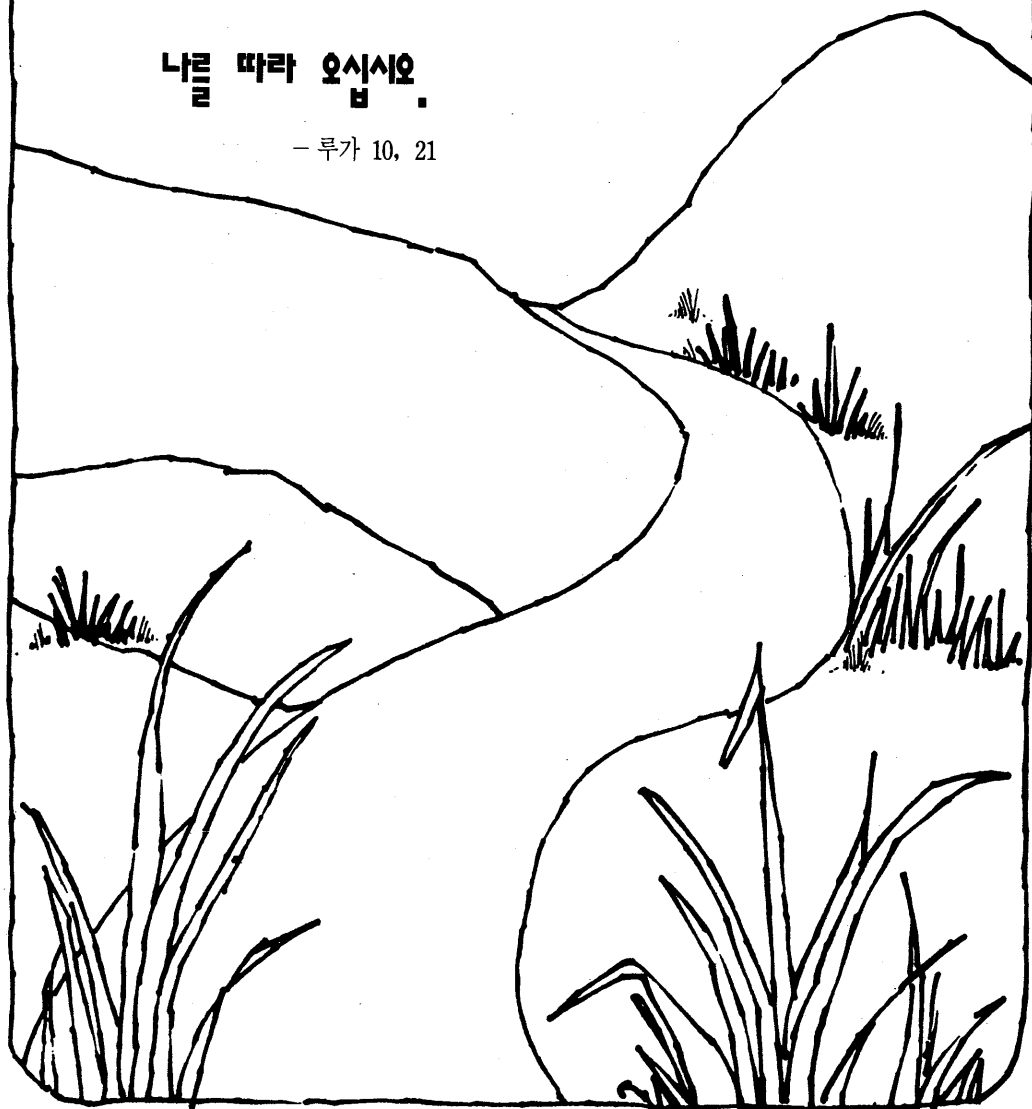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 마지막 날 이후의 영적일기를 읽고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가장 깊이 감명을 받았던 또는 감명을 받지 못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내가 처음으로 성서 구절을 가까이 했던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특정한 구절에서 하느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연다.

+ 기도 후 반성

하느님의 말씀에 ‘두번째로 귀기울이는 동안’ 떠오른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나를 따라 오십시오.

— 루가 10, 21



셋째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벗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루가 17, 21).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음을 각자 독특하게 체험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아픔이 치유되고 평화와 인식이 이루어지는 고요한 순간들, 즉 기쁨과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다 범위가 넓은 세계에도 역시 하느님의 나라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모든 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신적 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범세계적인 자각과 책임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 가족과 우주 가족에 대해서 더 큰 의식을 갖고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무수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발전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오면, 그분은 수많은 인류의 가슴 속에 끼치신 당신의 영향으로 서서히 이루어진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쉬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인들로서,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발전해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그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발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뻔뻔스러운 악의 세력의 실재와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은 선의 세력과 같지는 않으며, 말 가운데 자라는 잡초처럼 널리 퍼집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잡초들은 다른 잡초들보다 가려내기가 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파괴력이 덜한 것도 아닙니다. 가려내기가 힘든 잡초들도 다른 생명을 질식시켜 버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묘한 유혹 속에서 악의 세력을 알아보는 데 자주 실패합니다. 보다 교활한 악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내면적인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용기와 기민한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며 불안해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취약성을 지닌 분야에서 가장 쉽게 유혹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최초의 유혹물은 대개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그리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욕구들은 서로를 부추기며 세력을 발휘하도록 해줍니다.

그 과정은 점점 상승작용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내가 누구인지 보시오.

미래에 대비한다는 구실과 ‘출세’를 구실로 하여,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악의 존재조차 부정하게 되는 상태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악의 유혹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I 베드 5, 8).

제2차 바티칸 공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내면에서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 결과로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인간의 전 생애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사이에 있는 하나의 극적인 투쟁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악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들이 마치 사슬로 묶여진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면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당신을 죄의 속박 속에 묶어 두었던 ‘이 세상의 통치자’(요한 12, 31)를 쫓아내심으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며 강하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에 대항해서 투쟁해야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는 데 참여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해설과 기도 안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도록 개인적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발견하게 될 반성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기도 양식이나 특별한 ‘날’에 대해 수차례의 기도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제2규범으로서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으로 알려진 관상은 활발한 상상을 통해서 악마의 계략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도록 해줍니다.

예수님께 점점 더 깊이 감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을 섬기도록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로 여러분들은 인도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로마 16, 25).

셋째 주, 첫째 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다

I 디모테오 6, 3-12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시오.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 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

해설

바오로는 그의 제자인 디모테오를 염려하여 그 시대에 유행하던 그릇된 종교적 가르침을 반박하는 데 착수했다. 그의 중요한 동기는 ‘하느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이며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활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디모테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였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께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디모테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으로 그분의 본성이 입증되었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으며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I 디모 3, 16).

초대교회의 발전 단계 시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종교를 장려한 열성적인 ‘복음 전도자’들의 무리가 많았다. 그들의 가르침은 피상적이었으며 불안한 사람들의 약점을 노린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체험을 하신 것이 사실임을 교묘하게 부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가 지닌 선을 부정하는 왜곡된 복음에 대해 바오로는 매우 걱정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신비는 심오한 것이다.

지식과 선택의식을 강조하는 그릇된 가르침은 초기의 기독교도 사회의 희망을 짓눌러 꺼버렸으며 그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회의로 가득 차게 되어 자신들이 똑똑하지도, 선하지도 못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바오로는 사람들이 환멸을 느낀 나머지 갖가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디모테오에게 경고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올바른 태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특히, 부와 명예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열심히 주지시켰다.

바오로가, 초기단계에 있는 그리스도교 교우들이 가난으로 고통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것을 원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그들이 하느님을 충실히 믿으며, 그들 내부에서 시작된 창조적인 활동에 충실하기를 깊이 열망하였다.

“‘네 마음과 목숨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마태 22, 37), 이것만이 교회를 ‘하느님의 가정’이 되도록 합니다”(I 디모 3, 15).

바오로는 디모테오에게—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생활한다면 우

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께서 먼저 그 곳에 계시어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고무된 우리는 자신을 갖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우리 자신의 인간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삶에 기반을 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내면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갈라4, 19).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삶이 서서히 펼쳐져 내적으로 강해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석과도 같은 매력에 이끌리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란과 유혹들을 헤쳐나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들이 고심하는 강제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행동거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강제적이 되는 대신에 자비로워지게 된다. 물질을 모으는 것, 칭찬을 들으려 하는 것, 자기를 과장시키는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이 넘치는 배려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 안내 : 부에서 자유어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기도 방법(묵상과 관상 : 23~24쪽)

내 앞, 양쪽의 그리스도와 사탄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께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그의 곁으로 오라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을 본다.

두 군대의 장소가 보인다.

하느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그 곳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다.

사탄의 영토이며 악의 도시인 바빌론을 바라본다. 사탄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들의 두목인 사탄의 주변에 모여 있다.

+ 구하는 은총 :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다.

사탄의 계락을 간파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십사고 주님께 청한다.

악마의 술책들 중에 나를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술책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고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며 그분의 방식대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삶을 알게 해주십사고 청한다.

+ 접근 방법-제1부

바빌론 시의 한가운데 왕좌에 앉아 있는 사탄을 바라본다. 사탄은 불과 연기로 둘러싸여 있다. 계락을 꾸미고 있는 듯한 그의 표정을 상상한다. 그가 졸개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바라본다. 그는 변장한 악마들을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 마을들, 가정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보낸다.

사탄이, 그물을 치고 유혹한 사람들을 사슬로 묶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악마들에게 지시하는 소리를 듣는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유혹은 부에 대한 욕망이라고 악마들에게 말한다.

+ 접근 방법-제2부

나는 평화의 도시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나는 이 도시가 지닌 아름다움, 즉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지닌 고요한 부드러움을 상상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앉아 계신 것을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동참하도록 온화한 태도로 그들을 초대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사도들로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파견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사탄의 방법과는 반대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들을 사슬로 묶는 대신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도들이 삶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열지 못하도록 그들을 묶거나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사도들이 그들의 내면에 가난한 마음, 즉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마음과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해 균형잡힌 마음가짐을 키우도록 초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가난을 통해 이 내면적인 자유를 증명하도록 부르고 계신다.

+ 반성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혹의 희생물이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을 멸망과 파괴로 이끌어들이는 모든 종류의 어리석고 위험한 야망의 덫에 걸려들게 된다.”

사탄이 주로 이용하는 무기들은 두려움, 과장, 자기 연민, 자기 의심, 그리고 실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탄의 계략과, 그가 나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알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충동적으로 부와 신분을 추구하도록 이끄는가?
- 자기 연민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이끌어내 자신의 재능과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부정하도록 이끄는가?
- 과장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하며 허풍을 떨도록 이끄는가?

- 자기 의심이 지성적, 의지적, 심적, 그리고 신체적인 재능을 개발하고 단련시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나를 방해하는가?
- 실망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의 능력 이하로 일을 하도록 이끄는가?
-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소비주의나 부의 불균형 속에서, 위에 나열한 것과 똑같은 악의 도구들에 의해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너희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인내하며 온화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접근 방법은 정직, 감사, 수용과 성실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좀더 잘 파악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영향을 나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이 지구를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를 소유욕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가?
- 관대함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인정하도록 해주는가?
- 정직함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해주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나 그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교활하게 속이지 못하도록 해주는가? 정직함은, 내가 스스로를 과장되게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 주는가?
- 성실은, 어떻게 내가 남과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게 해주어서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가?
-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기아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것들을 통해서, 국가들과 그 국민들이 그리스도의 규범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악마가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해 새로이 깨달은 점과,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삶 속으로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 새로이 느낀 감사하는 마음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그에 따르는 느낌들을 적는다.

셋째 주, 둘째 날

성령으로 인도됨

갈라디아 5, 16-25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욕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욕정이 빚어 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해설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선의 천사’가 있다. 이 ‘천사’는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 즉 선과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근본적인 경향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선의 천사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응답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어둠의 천사’도 우리는 역시 알아볼 수 있다. 이

어둠의 ‘천사’는 분열과 파괴를 향한 충돌적인 욕구로 인식된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인간 이상으로 보이는 대립되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명을 갖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의 힘을 갖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엄밀히 말해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이다. 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누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바오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두 가지 세력을 영혼과 육체로 부르고 있다. 그가 뜻하는 영혼은, 즉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하느님의 성령과 협력하는 것이다. 육체에 관해서 바오로는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에 반대되는 모든 것의 상징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싸움에 도전할 때, 우리는 그 여정에서 나타내는 표징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면서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이 표징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뚜렷이 알아 볼 수 있다.

바오로는 갈라디아에 있는 이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재확신을 주고 있다. “성령으로 인도된다면 당신들이 방종에 빠질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바오로가 제시하는 악덕과 미덕,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물질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느님의 성령이 침투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총 안에서 비로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내의 선물을 주어 우리 내면의 아픔이 치료되는 과정을 예민하게 그리고 포용력 있게 겪어나가도록 해준다. 쓸모없는 수치심과 그릇된 죄의식을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들이 태어난다. 온화한 방법으로 수양을 닦을 때 자유의 정신이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준다. 성령은 또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감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또한 우리가 자신을 내어맡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사랑받도록 용기를 준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화한 태도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성령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창조의 힘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밝게 웃으며 즐거움을 누릴 때 성령도 기뻐하는 것이다.

바오로 스스로 모범을 보여 모든 것을 버렸다.

예수님의 생애를 모방한 바오로의 생애는 그의 내면에 있는 성령에게 온전히 내어맡긴 생애였다. 그의 생애는 성령의 힘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여야 된다는 것을 설교하는데 완전히 바쳐진 삶이었다.

바오로 사도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이해 부족이나, 그들의 율법이 지닌 형식에 완고하게 집착하는 것에 의해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다. 바오로는 그에게 궁극적인 의미와 기쁨을 준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촉구하였다.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은 그가 자신을 매우 깊이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며,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갈라 2, 20).

기도 안내 : 명예로부터 나약함으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기도 방법(묵상과 관상 : 23—24쪽)

내 앞, 양쪽의 그리스도와 사탄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께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그의 곁으로 오라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을 바라본다.

두 군데의 장소가 보인다.

하느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그 곳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다.

사탄의 영토이며 악의 도시인 바빌론을 바라본다. 사탄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들의 두목인 사탄의 주변에 모여 있다.

+ 구하는 은총 :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다.

사탄의 계락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청한다.

악마의 술책들 중에 나를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술책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며 그분의 방식대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삶을 알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 접근 방법-제1부

바빌론 시의 한가운데 왕좌에 앉아 있는 사탄을 바라본다. 사탄은 불과 연기로 둘러싸여 있다. 그의 표정을 상상해 본다. 그가 졸개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바라본다. 그는 변장한 악마들을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 마을들, 가정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보낸다.

사탄이, 그물을 치고 유혹한 사람들을 사슬로 묶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악마들에게 지시하는 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에게 두번째로 던져야 할 유혹은 명예와 존경에 대한 갈망이라고 사탄이 악마들에게 말한다.

+ 접근 방법-제2부

나는 평화의 도시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나는 이 도시가 지닌 아름다움, 즉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지닌 고요한 부드러움을 상상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앉아 계신 것을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동참하도록 온화한 태도로 그들을 초대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사도들로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파견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사탄의 방법과는 반대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들을 사슬로 묶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이 삶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열지 못하도록 그들을 묶거나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원하신다. 그분은 사도들이 그들의 내면에 가난한 마음, 즉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마음과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해 균형잡힌 마음가짐을 키우도록 초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가난과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을 통해서 이 내면적인 자유를 증명하도록 부르고 계신다.

+ 반성

“우리가 자기 탐닉에 빠지게 되면, 결과는 자명하다…….”

사탄이 주로 이용하는 무기들은 두려움, 과장, 자기 연민, 자기 의심, 그리고 실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탄의 계략과, 그가 나의 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두려움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신뢰를 침식하는가?
- 두려움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진실한 감정과 약점들, 그리고 장점까지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게 하는가?
- 두려움이 어떻게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루고서라도 나의 위치와 신분을 지키도록 만드는가?

- 나 자신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나를 칭찬하도록 그들을 조정하는가?
- 과장은 어떻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인정이나 보상을 요구하게 만드는가?
- 자기 의심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잘난 척하도록, 즉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도록 만드는가?
- 자기 의심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지칠 줄 모르고 완전하길 원하게 하며 남에게서 확인을 듣기를 원하게 만드는가?
-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인기인’에 대한 숭배, 파괴적인 무기생산 또는 맹렬한 국수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악한 도구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와는 매우 다른 것들이다. 즉 그것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심, 친절, 선, 신뢰, 온화함과 자제심들이다.”

그리스도의 접근 방법은 정직, 감사, 수용과 성실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좀더 잘 파악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영향을 나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나의 공로와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진심으로 축하하도록 만드는가?
- 정직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해주어 내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설적인 비평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가?
- 수용적인 태도는 어떻게 내가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들과 상호 신뢰하는 솔직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가?
- 관대함은 어떻게 나의 마음 안에 용기를 심어 주어 감히 실패와 거절당할 위험을

마다하지 않게 해주는가?

- 진실함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형식주의와 냉담함에서 멀어지게 해주는가?
-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나라들과 그 국민들이 그리스도의 규범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져서 무언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을 이룩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 (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악마가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해 새로이 깨달은 점과,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삶 속으로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 새로이 느낀 감사하는 마음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그에 따르는 느낌들을 적는다.

셋째 주, 셋째 날

나로부터 우리에로

마르코 10, 35-45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해설

‘나’로부터 ‘우리’에로의 길은 멀다. 진실한 사회(공동체)는 모든 분야 즉 정치, 종교, 경제, 가정생활 등에서 강자가 우선인 ‘서열’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다. 항상 누가 제일 잘났는가? ……누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딱한 야고보와 요한, 그들 역시 이기고 싶어하는 놀이에 말려들었다. 마르코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느리다는 점을 그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라고 참된 질문을 하는 대신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마르 9, 34)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다.

이 두 사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답변은 그 뜻을 포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당신들은 무엇을 묻고 있는지나 압니까?” 당신들은 정말로 기꺼이 나의 생활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삶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내가 마시게 될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고통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려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도 부인하는 것이 된다.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사람이 되는 진정한 길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일상 생활에서 겪는 삶의 일부분인 실망들, 실패들, 그리고 손실들을 능동적으로 참아내고 조정할 때에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한 수 높은 사람이 되기’ 놀이는 갑자기 멈추어졌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화를 내었다. 그것은 마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라고 묻는 것과 같았다.

‘높은 사람이 되기’ 놀이는 경쟁놀이이다. 첫째가 있으면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꼴찌가 있게 마련이다. 이 놀이는 이처럼 파괴적이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지만 고통스러운 사건을 이용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파격적으로 전도된 가치관을 더 깊이 암시하고 계신다.

높아짐은 남을 지배하거나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나 자신을 얼마나 확장하는가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도들이 허세와 권위를 내세워 스스로를 추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셨다. 특히 하느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위해 스스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본받아야 되었다.

예수님께서 완수하시고 또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흥정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한 손으로는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도로 거머쥐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진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으며, 그 동기는 오로지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었다. 오직 순수한 사랑의 행위만이 사람들을 죄악의 생활에서 이끌어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랑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조건없는 사랑에 의한 봉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나’로 부터 ‘우리’에로의 여정은 물론 신뢰, 즉 하느님에 대한 신뢰, 남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이다.

기도 안내 : 자만심에서 조건없는 사랑으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기도 방법(묵상과 관상 : 23~24쪽)

내 앞, 양쪽의 그리스도와 사탄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께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그의 곁으로 오라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을 본다.

두 군데의 장소가 보인다.

하느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그 곳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다.

사탄의 영토이며 악의 도시인 바빌론을 바라본다. 사탄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들의 두목인 사탄의 주변에 모여 있다.

+ 구하는 은총 :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다.

사탄의 계락을 간파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십사고 주님께 청한다.

악마의 술책들 중에 나를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술책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고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며 그분의 방식대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삶을 알게 해주십사고 청한다.

+ 접근 방법-제1부

바빌론 시의 한가운데 왕좌에 앉아 있는 사탄을 바라본다. 사탄은 불과 연기로 둘러싸여 있다. 그의 표정을 상상해 본다. 그가 줄개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바라본다. 그는 변장한 악마들을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 마을들, 가정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보낸다.

사탄이, 그물을 치고 유혹한 사람들을 사슬로 묶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악마들에게 지시하는 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에게 세번째로 던져야 할 유혹은 자만심이라고 사탄이 악마들에게 말해 주고 있다.

+ 접근 방법-제2부

나는 평화의 도시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나는 이 도시가 지닌 아름다움, 즉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지닌 고요한 부드러움을 상상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앉아계신 것을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사랑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동참하도록 온화한 태도로 그들을 초대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사도들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파견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사탄의 방법과는 반대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들을 사슬로 묶는 대신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도들이 삶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열지 못하도록 그들을 묶거나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에 가난한 마음, 즉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해 균형잡힌 마음가짐을 키우도록 초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가난과 개인적으로 겪는 굴욕을 통해서 내면적인 자유를 증명하도록 부르고 계신다.

+ 반성

“이방인들 사이에는 소위 지도자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로 이용하는 무기들은 두려움, 과장, 자기 연민, 자기 의심, 그리고 실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탄의 계략과 그가 나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더 잘 깨닫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신뢰가 부족한 데서 오는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복잡한 자만심을 교묘하게 또는 교묘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안에 형성하게 만드는가?
- 자기 과장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한 수 높은 사람되기’ 놀이로 몰아대는가?
- 자기 의심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늘 요구하게 만드는가?
- 조그만 권위와 남에게서 받는 인정은 어떻게 나를 의기양양하게 만들며, 내가 감동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만드는가?
- 실망은 어떻게 나를 파멸시키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가?

- 과장된 자부심은 봉사활동이나 선행을 어떻게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잇속만 차리는 일로 바꾸어 놓는가?
 - 자기 연민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항상 투덜대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하게 들려고 만드는가?
 - 과장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나의 역할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총애나 특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가?
 -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군비확대 경쟁에서 이와 똑같은 사악한 계략들에 의해 조정되고 무력해지게 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 “여러분 중에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남을 섬겨야만 합니다.”
- 그리스도의 접근 방법은 정직, 감사, 수용과 성실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좀더 잘 파악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영향을 나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나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는가?
 - 정직함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비판적이 아닌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는가?
 - 다른 사람들을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보상 없이 봉사하도록, 그리고 양값을 없이 고통을 겪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가?
 - 정직함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지위나 국적같은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자매란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는가?
 - 굴욕과 모욕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그리스도의 자세는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아픔을 낮게 하기 위해 나도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 것으로 하도록 고무시켜주는가?
 -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사업에서, 평화운동과 군비철폐를 향한 노력 속에서, 외국에 나가 일하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실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본을 나는 어디서 보는가?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악마가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해 새로이 깨달은 점과,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삶 속으로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 새로이 느낀 감사하는 마음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그에 따르는 느낌들을 적는다.

셋째 주, 넷째 날

반복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기도 방법

28쪽에 있는 반복기도를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의 반복의 날 이후의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앞의 세 가지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가장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영성적으로 무미건조함을 경험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앞의 성서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성서 구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연다.

+ 구하는 은총

사탄의 계락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고 주님께 청한다.

악마의 술책들 중에 나를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술책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고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며 그분의 방식대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삶을 알게 해주십사고 청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들, 경험들, 혹은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다섯째 날

세 사람

마태오 6,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해설

600년 전에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에게 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에 어떤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각자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당한 양의 돈을 받게 되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뜻을 지닌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다.

많은 돈을 받게 되면 그 누군들 흥분하지 않게 될까?

처음의 들뜬 기분이 가라앉은 후, 그렇게 많은 돈을 얻게 됨으로써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을 깨닫고 세 사람은 두려워졌다.

이 세 사람은 ‘이 돈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들의 질문은 한결같았지만, 그들의 반응들은 판이하게 달랐다.

첫번째 사람은 돈에 매혹되어 부유하게 된 것을 좋아하였다.

그는 부가 그에게 가져다 준 명성과 안위를 즐겼다. 그는 최대한도의 성실성을 갖고 그의 사업을 해나갔으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부에 대한 집착이 그에게 주는 영향을 잘 깨닫고 있었다. 그는 가장 이익이 큰 몫에 그의 돈을

투자하면서 점차로 자신이 받는 수익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생에는 현재의 이 안락함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그의 양심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속에서 성가시게 구는 이 내면의 목소리와 언젠가는 타협을 하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언젠가’는 찾아오지 않았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을 누리라고 초대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죽고 말았다.

두번째 사람도 새로이 얻은 부에 역시 매료되었다. 그러나 거의 처음부터 그녀는 그러한 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예리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부에 대한 집착이 하느님과 그녀와의 관계에 이롭지 못할 것이란 점을 특히 우려하였다. 그녀는 진퇴양난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매혹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횡재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될 것이라고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돈으로 벌어들이는 이자를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 도서관을 짓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도서관 건물은 인상적이었으며, 주춧돌에는 건물이 지어진 날짜 뿐만이 아니라 제일의 기증자로 그녀의 이름이 새겨 넣어졌다.

세번째 사람 역시 큰 액수의 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걱정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반응은, ‘하느님의 순수한 선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의 자세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란 깊은 확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하기만을 바랐다.

그는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께서 길을 보여 주시리란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이 확신을 갖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어떤 방향이 분명히 보일 때 사용하기 위해 그 돈을 신탁기금에 넣어 두었다.

동시에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있겠다고, 또한 이 신탁기금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다.

기도 안내 :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3쪽)

성 이냐시오가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주의깊게 읽어보자.

하느님과 모든 성인 성녀들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본다. 내게 가장 영감을 주었던 성인들에게 주목한다.

하느님과 이들 성인 성녀들 앞에 홀로 서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하느님의 선을 가장 분명하게 빛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선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성 이냐시오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야기 속의 세 사람을 각각 바라보며 그들을 자세히 상상해 본다. 나의 상상이 허락하는 대로 예를 들어 그들의 생김새, 나이, 가족 상황, 그들의 일상생활 등을 자세히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

계속하여, 그들 각자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숙고해 본다.

나 스스로 세 사람 중 각자의 위치에 서 본다. 그들의 반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 나에게 주어진 선물 또는 '부'는 무엇인가?

- 나의 반응은 첫번째 사람의 반응과 어떻게 같은가 혹은 다른가? 두번째 사람과는?
세번째 사람과는?

무질서한 집착은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맡기는데 장애가 되며, 그것이 나의 생활 속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더 잘 깨닫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 무엇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그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예를 들어 지위나 명성, 또는 어떤 특별한 소유물 등의 상실)
- 나는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나의 양심의 소리, 즉 나의 환기를 불러 일으키고 또 확인하며 성가시게 구는 양심의 소리를 자주 듣고 있는가?
-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나의 자세 때문에 나를 노예로 만들기 쉬운 것은 어떤 것들인가? (예를 들어 돈, 명예, 직업 등)
-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소유욕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았는가?
- 편리함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미련없이 취하든지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몰두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와 자유를 어디서 가장 강하게 체험하는가?

주의 :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를 깨닫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는 바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서 거둬 가 주십시오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성 이나시오는 제안하고 있다. 그 ‘재산’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로부터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깨달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써, 이 급진적이며 고통스러운 기도를 바치라고 성 이나시오는 권하고 있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느낌들을 특히 잘 감지하면서 더 큰 영성적인 자유에로 향한 나의 여정에서 얻어진 깨달음과 이해된 것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여섯째 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마르코 10, 17-30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 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그 부자 청년을 대견하게 여기시며 바라보셨다.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불만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아주 부유한 지도층의 일원(루가 18, 18)일 것이 분명한 한 사람을 그에게서 보신 것이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라고 그는 예수님께 물었다. 이 질문은 그가 의도했는지도 모르는 그것보다 무언가 더 이 청년의 내면적인 자세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이것은 그 순간까지 그의 인생을 형성해 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매우 부유하였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명성을 얻고 부를 취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부’는 물질적인 소유를 훨씬 벗어난 그 무엇이었다. 그의 방어적인 생활방식은 그의 시야를 좁혔으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는 자신의 모든 믿음을 물질적인 것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두었던 것이다.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마치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외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그는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왔던 좋은 사람이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속삭이며 마음을 깊이 뒤흔드는 것이 있어서, 이 청년은 그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갖고 그를 바라보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마르코의 온화한 어투는 ‘무언가 더 큰 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하느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도록 그를 초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만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이 부자 청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실체를 부정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일생을 보낸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질문을 제기하지 못한 그는, 깊은 내면의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실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가 제기한 질문으로 보아서 그는 근본적으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감지하신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대답은 그것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자신을 뛰어 넘어 도약함으로써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초대하셨다.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무척 침울해졌다.”

이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는 가장 슬픈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그 사람은 너무도 자기 자신과 부로 가득 차서, 더 큰 안전을 위해 자신을 내어맡기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버림으로써, 평화와 ‘모든 것’—예외가 없이 모든 것—, 즉 절대적인 진실과 사랑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실체에 가깝게 존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인간 삶의 절대적인 무한성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어 또한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절한 것이다.

그는 슬픔에 잠겨서 돌아가버렸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도 역시 슬퍼하셨음에 틀림없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는 어떠합니까?”라고 묻게 된다.

예수님께서 ‘놓아 주기’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확인해 주신다.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하느님께 둘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상처를 받을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아름다우면서도 가혹한 삶의 실재에 마음의 문을 감히 완전하게 열게 될 것이다.

기도 안내: “네”라고 대답하기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의 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게 할 수 있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소명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사고 청원한다.

+ 기도 방법(관상: 24쪽)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부자 청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본다. 그가 원했던 바를 내 자신도 음미해 보도록 한다. 그의 처지에 있는 내 자신을 상상해 본다.

그가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느낌이 어떠한가? 망설이면서? 두려운 기분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오만한 심정으로 그에게 접근하는가?

나의 질문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한가? 놀라운 표정이었나? 온화한 또는 슬픈 표정이었나? 혹은 무언가 다른 표정이었는가?

세밀한 내용과 또한 그에 따르는 느낌을 주목하면서 성서 구절에 나오는 대화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인다.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 포기한다는 생각을 할 때 그에 따르는 느낌을 나는 매우 잘 알고 있다.

부자 청년과는 달리 나는 예수님께 “네”라고 대답하기로 결심한다.

포기하는 순간의 나 자신을 상상해 본다. 그렇게 포기할 때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한다. 이에 관한 내 느낌을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그분의 반응을 본다. 그분의 표정과 말씀에 깊이 주의한다.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겪을 동안 나와 함께 계시어 그분을 따르도록 결정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십사고 청원한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사고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사고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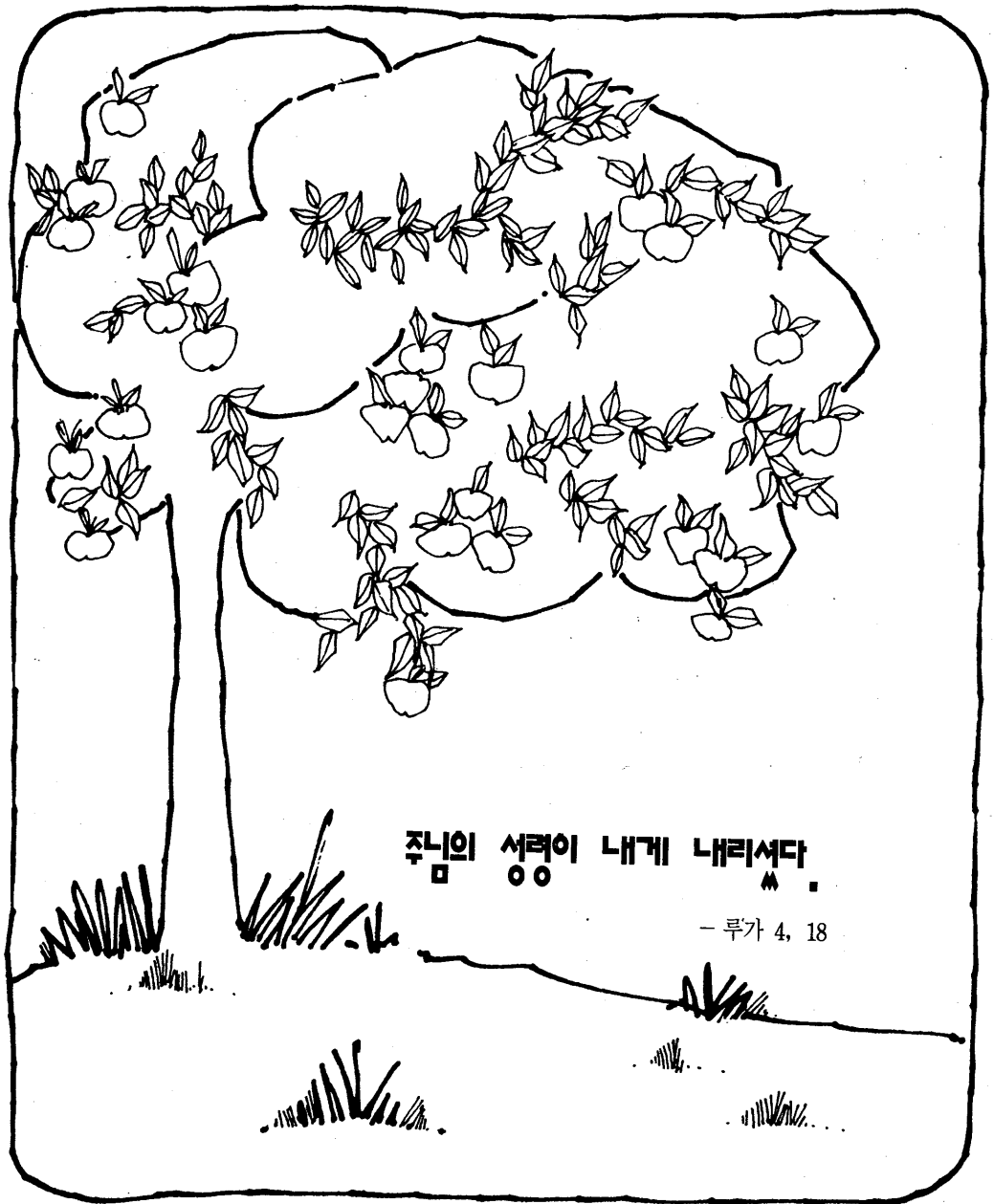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마음속에 현재 떠오르는 느낌들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기도 중에 예수님을 더 가깝게 따르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첫째 날

성령 안에서 걷다

마태오 3, 13

그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해설

그즈음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오셨다.

“집은 우리가 삶을 최초로 시작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삼십여 년 동안 집에서 생활하신 후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강에 오셨다.’ 이 짧은 문구 속에는 부모와 아들의 이별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것은 젊은 예수의 출현, 그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예수에게는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었으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 순간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가 나자렛의 집에서 받았던 사랑과 관심만큼 그를 잘 준비시킨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가 삶에 그다지도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의 비밀은 이 사랑을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였던 데에 있다.

야훼께 대한 깊은 신심을 지녔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의 조상들이 지니고 있었던 풍부한 영신적인 재산을 예수에게 물려 주었다. 믿음 안에서 앞서 간 그의 모든 조상들은 이제 요르단 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그의 믿음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약속에 굳게 매달렸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통하는 것이었으며, 그가 지녔던 열망은 약속의 땅을 꿈꾸던 모세가 지녔던 열망과 같으며, 그가 지녔던 신뢰는 그의 백성들이 망명지에서 고향을 잃고 떠돌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간직했던 그러한 신뢰였다.

이 마르지 않는 깊은 샘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생애에도 계속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에 근거를 둔 목적과 방향 의식을 갖도록 예수를 준비시켰다. 그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현재의 그의 여정, 즉 '매순간 속에서 지속될 평생의 열망'에 자극이 되며, 그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 예수는 그의 조상들이 지녔던 정신 속에서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의 사명과 운명을 깨닫도록 사랑의 힘으로 그를 부추기는 그러한 정신 속에서 그의 인생 길을 간 것이다.

기도 안내 : 인생의 공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께서 지니신 깊은 사명감과 그분께서 겪으신 인간적인 체험, 즉 가족과 집을 떠나야 했던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예수께서 지니셨던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3쪽)

예수님의 인생처럼 나의 인생도 결정과 여정으로 점철된 인생이며, 미지의 것을 향해 익숙하게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인생이다. 예수께서 나자렛을 떠나 요르단을 향해 가신 여정을 상기하면서 내 자신의 여정을 머리 속에 떠올려 본다.

마치 큰 공 속에 모아 넣듯이, 내 인생의 모든 기억들을 모아 본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부모님, 형제 자매들, 조부모님들에 대한 기억들을 모아 본다. 그들과 사랑을 나누던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고통과 실망의 순간들을 다시 들여다 본다. 마치 공 속으로 밀어 넣듯이 실제로 손을 움직이면서 이 모든 기억들을 상상의 공 속에 집어 넣는다.

나의 인생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 본다. ……집대였던 시절, ……집을 떠났던 시절 ……,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사건들, 학교의 친구들, 행복하고 성공적이었던 시간들과 실패했고 불행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본다.

이 모든 기억들을 함께 모아 보면서, 나의 인생이 동적(動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나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많은 결정들을 해야 했었고, 그 결정들은 모두 내 인생의 방향과 형태를 잡아주었다.

내 인생의 공을 관상해 보니, 나의 체험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것들끼리 덩어리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그 덩어리들의 색깔과 질감에 주의를 기울여 본다. 이 덩어리들은 어떤 특정한 말로 구별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실,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성장이 일어났던 순간들, 중요한 결정을 했던 순간들, 집을 떠나 있었던 순간들과 같은 것들이다.

나는 내 인생의 공을 예수께 가져간다. 그분께 나의 인생이 지닌 많은 색깔과 질감들을 보여 드린다. 내 인생에 대해, 내 삶의 방식에 대해 그 공이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결정에 관해 그 공이 내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그분께 말씀드린다. 예수께서 두 손으로 그 공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본다. 그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의 얼굴을 지켜 본다.

예수께서 그 덩어리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기울여 듣는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현존하고 계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게 말씀해 주신다. 고통과 죄로 인해 어둠을 지녔던 덩어리들조차도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로 어루만져졌었다. 예수께서는 내 인생의 형태가 당신의 그것과 얼마나 닮아 있나를 말씀해 주신다. 그분 역시 인간적인 체험을 하시는 동안 인생이 수반하는 기쁨과 고통을 모두 맛보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의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모아지고 보존되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안심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나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만이 갖는 독특한 소명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왔다고 말씀해 주신다. 나는 두 팔을 벌려 그리스도로부터 내 인생의 공을 받아든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깨달음, 감상들, 그리고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둘째 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마태오 3, 13. 16-17

그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해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과 불의 성령이 함께 내려왔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 체험의 극치 속에 한데 모였다. 태초에 혼돈된 바다 위로(창세 1, 2) 떠돌던 성령의 창조적인 힘이 물과 불의 강력한 상징 속에 나타나 있다. 이 상징들은, 야훼께서 불기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빠져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시어 자유롭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하신 때를 상기시킨다(출애 14, 15).

이스라엘의 자손인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특별하고 비범한 신분과 사명을 시작하시는 것을 뜻한다.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들었다.

예수의 생애의 열망과 열정이 이 말씀 안에서 확실해졌다.

이는 예수께 대단히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의 온 생애를 통해 하느님과 백성에 대한 그의 자각이 커지도록 은총을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순간에 하느님으로부터 예수에게 내려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를 부르신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며 번제로 바쳐지게 되어 있었던 이사악을 기억하고 두려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창세 22, 2).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이 ‘아들’이
뜻과 함께 ‘종’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었음을 아셨을 것이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그
자기의 생명을 속죄물로 바치면 고통으로……”(이사 53, 10) 찌그러질 불가사의한 종
묘사한 히브리 성서에서의 표현과 거의 같은 것이다.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부름을 받
있는 것이다. “내가 들어올리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선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 42, 1).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는 의심할 나위 없이 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
소명에 대한 충격에 사로잡히셨을 것이다. “그에게 나의 성령을 주었은즉, 그가 모
나라들에 진정한 정의를 가져오리라”(이사 42, 1).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죄인됨을 알고 하느님
필요성을 새롭게 깨달은 그들은 요한으로부터 참회의 세례를 받기 위해 방방곡곡에
몰려들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때가 왔음을 아셨다. 이미 그분의 가슴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외쳐지고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치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루가 12, 49-50).

예수 안에서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된 것이다(II 고린 5, 17).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특별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다.

요르단 강의 물 속에서, 성령으로 덮여서 새롭게 취소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모든 인간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 주리라”(요엘 3, 1; 사도 2, 17).

기도 안내 : 물 속에서 축복받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진실되게 따를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을 깊이 알 수 있고 그분께 가까워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내심기도 : 25쪽)

예수님과 함께 요르단 강으로 간다. 그분께서 강물 속으로 들어가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물 속에 잠긴다.

몸이 물 속에 차츰 잠겨들자 물의 감촉을 느낄 수 있다.. 나의 몸이 천천히 물로 덮이자 내 몸의 감각을 의식한다.

나는 특히 물이 주는 감촉을, 즉 그 물이 맑고 신선한지 혹은 진흙투성이에다 썩어 있는지를 느껴 본다. 이 체험에 따라오는 어떠한 느낌들도 물에 잠겨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동안은 이 체험 속에 머물러 있다.

물에서 나온 후 강둑 위에서 쉰다. 예수님의 체험과 나의 체험에 대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받은 성세성사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

주님, 당신의 보이지 않는 권능이 지닌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성사의 기적을 통해 당신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성사 안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은총의 상징으로 만드신 물의 선물을 우리는 성세성사에 사용합니다.

태초의 창조 때에 당신의 성령이 물 위에 숨을 뿜어 모든 성스러운 것들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거쳐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구하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으며 세례로 죄에서 헤어나게 하셨습니다.

요르단 강물에서, 당신의 아들께서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이제 당신의 교회와 저를 굽어 살피시어 세례소를 열어 주소서.

성령의 힘으로 당신 아드님의 은총을 이 물에 내려주소서.

당신은 당신의 모상으로 저를 창조하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저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사 순결하게 새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신 당신과 당신의 아드님께 구하오니 성신을 제게 내려주소서.

물의 샘들이여, 주님을 축복하라.

주님께 영원히 영광과 찬미를 드리라.

-부활전야: 성세수 축성기도(수정판)-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현재의 느낌들에 특히 주목하면서, 기도 중에 예수님을 더 가깝게 따르도록 부르시는 마음속에 떠오른 소명이 있으면 그것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셋째 날

진정한 정의(正義)

이사야 42, 1-9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 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못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 주리라.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밖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 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박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 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시고
땅을 밟아 늘이시고 온갖 싹이 돋게 하신 하느님,
그 위에 사는 백성에게 입김을 넣어 주시고
거기 움직이는 것들에게 숨결을 주시는
하느님 아뢰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야훼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 주고
너를 세워 인류와 계약을 맺으니
너는 만국의 빛이 되리라.
소경들의 눈을 열어 주고
감옥에 묶여 있는 이들을 풀어 주고
캄캄한 영창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놓아 주어라.
나는 야훼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가 받을 영광을 뉘게 돌리랴?
내가 받을 찬양을 어떤 우상에게 돌리랴?
전에 말한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새로 될 일을 내가 미리 알려준다.
씩도 트기 전에 너희의 귀에 들려준다.”

해설

“건전하고 온전한 삶에 있어서 희망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사야 예언서의 대목은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희망의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보다 이러한 예언적인 말을 더 필요로 한 사람들이나, 우리의 시대보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한 시대가 있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원래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 인들이 고국을 떠나 바빌론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 한 것이었다. 조국을 잃은 고통과 조국으로 돌아가고픈 갈망으로 보낸 칠십년 후에,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인(이사 41, 1-7) 고레스의 지도력에서 유대 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야훼의 ‘목자’였으며, 유대 인들에게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이사 44, 28) 체험을 되살려 주시려는 하느님의 목적을 완수하게 될 운명이 그에게 정해져 있었다.

고레스는 유대 인들에게 유대 땅으로 되돌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유대 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 주었다(II 역대 36, 22-23). 그들은 ‘세계 만방의 빛’으로서의 그들의 신분과 사명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예언자는, 야훼께 완전한 신뢰를 두고 이기심 없는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을 유대 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생활하도록 부르는 것이며, 종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는 것이다.

종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부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신앙의 정수를 그대로 반향해 주는 것이다. 오직 하느님과 남을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인간사의 드라마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의 자취를 발견하고 있다. 그들이 때로는 어떠한 상태로 엎매여 있었거나 무지 몽매한 상태로 있었던 간에, 그들은 언제나 모두가 함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유로워졌다.

야훼께서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구하시어 사막을 거쳐 약속된 땅으로 데려 오셨듯이, 이제는 새로운 탈출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광야를 거쳐(이사 43) 유배에서 구해내셨던 것이다.

이 유배로부터 귀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는 우주를 존재하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창조적인 힘을 상기시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위를 거닐던 성령은(창세 11, 2-5) 이제 하느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현실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너희가 개심하여 평온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힘을 얻을 것이니라……”(이사 30, 15).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훌륭한 일을 하였다. 그는 그

들에게 옛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가운데, 현재와 과거를 연결지워 줌으로써 이스라엘을 희망 속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었다. 과거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충실하셨는지, 그리고 현재에는 또 얼마나 활발하게 관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희망과 새로운 탄생의 핵심이 되는 의식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전에 예언한 말들이 이제 사실로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예고하리라…….”

이사야는, 희망을 종의 모습으로 의인화(擬人化) 하였다. 네 번에 걸친 야훼의 종에 대한 노래에서 종은 바로 개별적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사야서 42장 1-9절은 희망과 섬김에 대한 주제가 한데 통합되어 있으며, 진정한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된 네 노래 중 첫번째의 것이다. 정의는 살아 있는 말씀인 하느님께 창조적인 방법으로 충실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선물이다. 정의로운 것은 올바른 것, 즉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종의 자세와 나아갈 길을 구체적인 용어를 들어 똑똑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성령을 받아 종이 된다는 것은 군대의 힘이나 황제의 힘을 갖는 것과는 전혀 반대이다. 폭력이 있는 곳에서 그는 온유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서 그는 빛을 찾아주며, 갇혀 있는 곳에 그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 종의 삶은 무방비한 삶이다. 그는 하느님께 완전히 의지하고서,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희망을 증거하며 희망을 고취시킨다.

이 희망은 신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신뢰와 희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움켜잡는 것, 소유하는 것, 그리고 빼앗는 것은 종이 되는 길이 아니다. 신뢰와 희망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하고 항상 새로운 선물이며, 오직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권능을 주시며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되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리라.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더라도 피곤하지 않으리라(이사 40, 29-31).

기도 안내 : 종의 기도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그분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느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그분이 형성해 주는 정신과 꿈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께서 히브리 성서를 사랑하셨음과, 그것을 읽으시고 깊이 생각하셨음을 깨닫는다.
 예수께서 방 안에, 혹은 호수 근처의 언덕에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경건하게 읽으신 후에
 깊이 생각에 잠기신 모습을 상상한다.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보니, 그분은 당신 곁에 앉으라고 나를 초대하신다. 예
 수께서 이사야서 42장 1-9절을 읽으시는 것을 조용히 듣는다. 예수께서는 어떤 대목을
 되풀이 읽으시며, 그분 자신과 나에게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시고 하
 느님께 기도를 바치신다.

나는 내 가슴 안에서 땀도는 느낌들과, 내 마음 안에서 살아나는 꿈들을 깨닫는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느낌들과 특별히 나를 감동시킨 생각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넷째 날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마태오 4, 1-11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 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해설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족이다. 악은 의심—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우리의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이 목소리를 만나신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모세와 엘리야처럼 ‘성령에 인도되어’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그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 깊이 관상하시려고 광야로 나아가셨다.

악마가 공격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때인가!

예수께서는 막 세례를 받으신데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지만, 인간성도 함께 지니고 계셨으므로 그 당시에는 특히 의심의 유혹을 받기 쉬운 상태에 계셨던 것이다. 그렇게도 강력한 선의 세력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될 가능성 앞에 악마가 얼마나 겁이 났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만하다. 사탄이 예수 앞에 터무니없는—그러나 실제로—유혹을 던진 것을 보면, 악마는 매우 깊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악마의 유혹은 예수님의 신분의 핵심이 되는 것을 표적으로 노렸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인간성을 받아들이셨을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권능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포기하고 또한 인간사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래에 펼쳐질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할 만큼 순종적이셨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우쭐해져서 자기 멋대로 권력을 취하셨을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보고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유혹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께서는 사십 주야를 단식하고 나서 몹시 허기지셨다. 사실상 악마는 “당신은 이제 앞으로 허기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첫번째의 유혹은 인간이 굶주릴 때 느끼는 감정을 깊이 건드리는 것이다. 예수의 신체적인 굶주림은 갈망, 즉 모든 인간이 지닌 ‘굶주림’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만약 예수께서 약삭빠른 구세주가 되기 위해 굴복하셨다면, 내면적인 굶주림을 받아들여야만 만날 수 있고 중재될 수 있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예수는 부정하셨을

것이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느님께 의존하고 계시다는 점을 겨냥해서, 악마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보시오.”

두번째 유혹을 던진 사탄의 교활한 목적은 예수께서 스스로를 파괴하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유혹도 역시 예수께서 그분이 지닌 인간성을 부인하고 하느님과의 동등성에 매달리게 하려는 것이다(필립 2, 6).

예수께서는 천사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만큼 불안한 위기에 처해 계셨지만, 그분께서 겪으신 시험은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간구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예수께서도 역시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홀로 견디셔야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도 역시 고독을 견디셔야 했으며, 하느님 안에서 확실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에서 누구나 갖게 되는 느낌, 즉 외면적으로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느낌을 견디셔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어두운 면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발견을 상실하는 것이며, 물론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수께서는 어둠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과시욕, 즉 자신의 거룩성과 권능을 증명하려는 그릇된 시도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시편 91, 11-12) 악용하는 것도 되는 과시욕에 빠지신 것이 아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을 유혹하려는 악마의 노력은 점점 고조되어 그 절정에 이르러서는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고 예수를 유혹하였다.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제 예수께서도 전 인류가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직접적이고 뻔뻔한 권력에 대한 유혹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하느님과 악마 중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교묘하게 타협하려고 든다. 우리는 내면에서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해선 이 진실을 무시할 필요가 있어’ 혹은,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 라든지, 누군가에 의해 지배당하거나 조정을 당하게 되면 언제나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매도하는 일이 생기며, 그 결과로 항상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 ‘누군가’는 사람일 수도, 어떤 일, 목적, 사상 또는 유대 인들에게서처럼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출애 32).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빼앗거나 일그러뜨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 혹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 되며, 그것은 그릇된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으셨다. 그분은 분명한 안목을 가지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악마를 물리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밝히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로써의 신분에 도전했던 악마의 세력과 맞서시고,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사랑의 전도를 시작하실 준비가 되신 것이다.

기도 안내 : 광야로 나아가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진실되게 따를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을 깊이 알 수 있고 그분께 가까워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예수님의 인간되심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신뢰와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나 역시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기를 청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간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를 아주 자세히 상상해 본다. 나에게 있어서 광야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막인가, 아니면 나의 광야의 이미지는 어두운 숲인가, 혹은 툰드라(추운지방)인가, 혹은 텅빈 집인가, 혹은 ……? 내가 이끌려간 이 광야 한가운데 서서 느끼는 느낌들에 주목한다. 가장 억압적이고 두렵고 위협적이며, 혼란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악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그 악의 존재를 자세히 바라본다. 그것에게 어떤 형체를 부여해 본다. 그건 어쩌면 어두운 그림자이거나, 무서운 짐승이거나, ‘악마’ 같은 사람이거나, 혹은 형체 없는 어떤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 악의 존재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보이며,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지켜본다.

이 악의 존재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세 가지 유혹을 내게 던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나의 ‘굶주림’에게 말한다. “너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후원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에 말을 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얻고, 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끝없는 노력을 피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이고 싶어 하는 필요성에 말을 건다. “너의 권력과 지배는 네 가치를 재는 척도이다”라고…….

이러한 유혹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다. 나는 그분께 이 유혹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내가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분의 힘을 나누어 주십시오 청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신, 인간적이며 겸손한 체험을 하신 것에 감사드린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간다. 다시 한 번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깨달음, 감상들, 그리고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다섯째 날

취임 연설

루가 4, 16-30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말이를 받아 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말이를 말아서 시종들던 사람에게 되돌려 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탄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네 고향인 여기에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에 삼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 주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 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해설

성서의 이 대목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의 용기이다.

자신의 내면에 깃든 성령께 응답하면서 그 성령의 현존을 믿고 계셨으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놀랄 만큼 대담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장 사람들 가운데,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안식일의 예절에 주빈으로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으셨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으셨다. 우리는 그것이 고의적인 선택이었는지 혹은 우연의 선택이었는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의도된 대로 독서를 하신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 체험하고 계셨던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의 신분이 밝혀졌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신분도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성서의 이 대목은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미 쏟아진 물과 같이 되었고, 활의 시위는 당겨졌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간 것이다. 그와 같은 도약은 오직 성령의 설득에 의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예수께서 그들 자신들 중의 한 사람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열광적으로 공언하면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단호하고 확고하게 보여 주셨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섬기었듯이 예수님의 사명도 그분의 백성들과 고향 밖에까지 미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과 같은 그의 사명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이었다.

그와 같은 말을 듣자 사람들의 반응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 이사야의 예언서 대목에 비추어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무가 그들에게 독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분노에 떨었다. 예수님의 사명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멸시와 적개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취임사와 같은 말씀에서 몇 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잘난 체하는 국수주의에 용감히 반박하신 것이다. 사실상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도전했던, 동족을 초월한 일반성을 재주장하신 것이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이사 49, 6).

예수님의 반박은 사람들을 광폭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태연히 떠나가셨다.” 그들의 제한된 시야는 그분을 묶어둘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명을 요약한 것이다. 이 같이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겪으신 것과 같은 받아들임과 거부를 볼 수 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세 때 받은 성령께 우리를 내어맡기는 속에서도 이 모습은 ‘재현’ 된다. 이사야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체험도 우리의 것이 된다.

기도 안내 : 예수님의 용기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깊게 알 수 있고 그분과 가깝게 될 수 있는 은총과, 특히 그분의 용기와 믿음과 인간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나자렛의 회당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

회당 안을 자세히 상상해 보며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동안 그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지켜본다. 그분께서 예언서를 읽으시는 동안 그분의 얼굴을 지켜보며 귀기울여 듣는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의 성령께로 깊이 들어간다.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용기를 특별히 알아챈다. 나는 그분의 고향 사람들의 적개심에 대한 그분의 반응을 본다.

예수의 현존 안에서 나 자신의 용기와, 또한 용기가 부족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 내 개인 신분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용기
-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을 수 있는 용기
-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굴복할 수 있는 용기
- 거부,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올지도 모를 거부에 맞설 수 있는 용기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깨달음, 감상들, 그리고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여섯째 날

반복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그분을 보다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보다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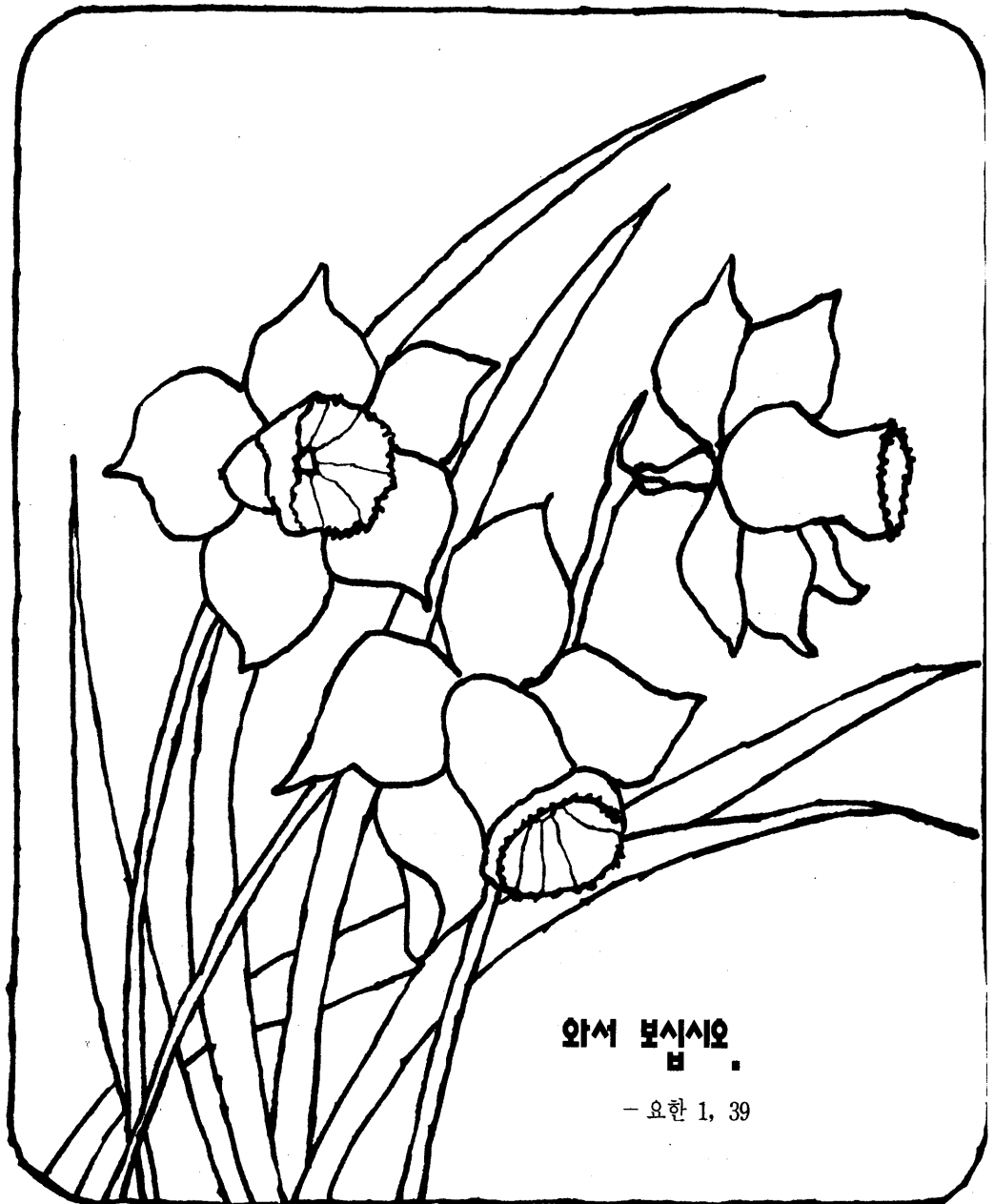
+ 기도 방법

28쪽의 반복기도를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에 적은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감명받지 못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처음에 성서의 대목에 접근하던 방법을 사용한다. 마음을 열고 그 대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모든 느낌, 체험, 깨달음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와서 보십시오 .
■

— 요한 1, 39

다섯째 주, 첫째 날

와서 보시오

요한 1, 35-51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뒤돌아 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필립보는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우리들은 모두 실현되길 기다리는 잠재적인—때로는 가두어둔—꿈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 잠자고 있는 갈망을 인간의 현실로 놓여지게 하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분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라고 우리에게 묻는 이다.

이 결정적이며 시작이 되는 질문은 모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타고난 갈망을 일깨운다.

하느님께서 예수로서 실제로 사람이 되신 역사적인 현실은 진실로 모든 창조물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을 변화시켰다.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은총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 최초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운명적인 현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창조적인 힘을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부여해 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묵고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묻게 만드는 것이다.

요한과 안드레아의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와서 보시오”라고 대답하셨다. 이에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거기서 예수와 함께 그날을 지냈다.

그들이 사실상 예수를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묵으려고 결심한 것은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된 시작이었다.

사도행전에는 초기 교회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요. 아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기울여 들은 두 제자는 차츰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 존재의 근원과 마주 대하게 해준 실재, 즉 그들의 가장 깊은 실재를 거울 속을 들여다 보는 것처럼 환히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뵈은 것입니다”(요한 14, 9).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자 제자들에게는 구약성서 때부터의 희망이 실현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가 그의 기록에서 말하던 이스라엘의 왕을 예수에게서 본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자 그들의 꿈이 성취될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으로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며, 고통받는 야훼의 종이시며, 구세주이셨던 것이다.

새롭고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갖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으며, 강력한 힘으로 초기교회의 공동체를 이룩하였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요한과 안드레아에서 베드로에게로,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친 것이다.

그의 이름의 변화가 상징하듯이 베드로가 급격한 변화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자상하게 내면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감격했던 나타나엘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꿈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된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들로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꿈이 깃들어 있다.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지니신 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다.

번개와 같은 미소를 한번 지으시면, 마치 폭약처럼 우리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노래를 일깨우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기도 안내 : 초대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을 보다 완전히 알 수 있고, 보다 더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기도하는 자세로 성서의 대목을 다시 읽는다.

나 자신을 제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라고 물으시는 말씀을 듣는다.

다른 제자들처럼 나도 그분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라고 여쭙는다.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지낸다. 예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다. 그분의 움직임과 응답하시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그분과 이야기한다.

보다 더 그분을 닮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께 여쭙어 본 후, 그분의 대답에 귀기울인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나의 마음속에 떠오른 영상들, 깨달음들, 그리고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둘째 날

가나의 기적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요한 2, 1-11

이런 일이 있는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와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 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말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해설

물들이 당신을 보았나이다.

물들이 하느님 당신을 보고 떨었사오며
심연마저 뒤끓어 올랐나이다.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능하심을 만 백성에게 알리셨나이다(시편 77, 14. 16).

홍해는 하느님의 권능에 의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로 가는 길이 되었다. 새 시대가 열리는 벽두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향아리의 물이 제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였으며, 이후 그 사건은 항상 기쁨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징표가 되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예수께 주신 권능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내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일어났다. 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외면적이고 불가사의한 사건에 우리의 주의를 끌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서 쉽사리 눈에 띄이지 않는 더 깊은 실재를 볼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더욱 깊은 이 실재를 자각하며 얻은 결과로서 그것을 믿는 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와 축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요구되는 것은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드러내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특이한 변화는 복음사가인 요한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현존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많은 기적들 중의 하나이다. 그 뒤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에서도 예수께서는 구약시대의 약속들을 이룩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과거의 세계는 사라져 버렸다”(묵시 21, 4).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에 유대 인들에게 의미가 컸던 잔치나 예절 등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다(요한 2, 19). 예수께서는 생명의 빵이시며

(요한 6, 35),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다(요한 8, 12). 그분만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기적에 새로운 자극을 받아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 그들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혼인잔치는—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했듯이—그들이 하느님과 평화 속에서 일치하게 될 미래 왕국의 모습으로서의 상징을 제자들에게 띠고 있었다.

이 기쁨에 찬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느님의 나라와 일치를 가져오실 분으로 깨닫게 되었으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혼인잔치에 참석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도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예수를 믿는 데 모범을 보이셨다. 마리아께서는 오랫동안 그 믿음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계셨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신 마리아께서는 깊은 믿음을 갖고 곧 예수께 가서서 그분의 풍부한 권능을 발휘하도록 감히 요청하셨다. 그녀는 당신의 아들에게 곧 그의 사명에 착수하도록 촉구하셨던 것이다.

마리아께서 이처럼 주저 없이 시작하심으로써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예수와의 관계도 변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사명에 있어 그녀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인 ‘여인’으로 부르셨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어머니가 되심으로써 성교회를 받아들이셨으며(요한 19, 25-27), 그녀는 그 이후 ‘교회의 어머니’로 불리우시게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하와’가 되신 것이다(I, 교회 53, 86).

우리도 성모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으며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닌 권능에 의해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이다.

가나의 기적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도 안내 : 혼인잔치에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완전히 알 수 있고,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며, 그분을 더욱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이 성서의 대목이 지닌 이야기와 이미지를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는다. 나 자신이 혼인잔치에서 거드는 하인들 중의 하나라고 상상해 본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에 젖은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본다.

손님들, 음식, 음악 등 잔치 분위기에 젖은 주위를 상상해 본다. 기쁨과 흥분과 웃음으로 둘러싸인 축제 분위기를 체험한다.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하는 것을 나도 함께 느낀다. 마리아께서 예수께 다가가시는 것을 보고,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다.

마리아께서 우리 하인들에게 지시하시는 말씀들을 듣는다.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는 것을 거둔다. 연회 책임자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 일이 내게 맡겨진다.

그가 그 포도주를 맛본 후 감탄하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깨닫는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들에서 이 예수님의 권능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내 마음에 떠오른 느낌들과, 내게 감동을 준 말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셋째 날

생명의 물

요한 4, 5-30. 39-42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 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 인들과 사마리아 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 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르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 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 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나의 지난 일을 낱알이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만남에서 얻은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해졌다.

‘와서 보세요…… 그 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용할 물을 길으러 우물가에 왔던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인 갈증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풍자적으로 예수님의 목마르심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단순한 인간적인 부탁이, 그리고 목마름을 가시도록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던 사람의 단순한 인간적인 응답이, 그 여인을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 그분께 소개시킨 것이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는 말씀을 그녀에게 해주셨던 것이다. 사마리아 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유대 인으로부터도 오직 냉대만 받으리라 예상했었으나,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해와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그 여인은 예수께 우물물을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다. 생명의 물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이 흐르는 샘물과 같이 우리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면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실 뿐이다. 이 생명의 물인 성령은 그의 원천이신 우리 창조주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생각들, 활동들, 그리고 언어들에 창조적인 축복을 내리시어 그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함으로써, ‘생명의 산’은 ‘축복의 바다’로 바뀐 것이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위로를 받았다. 그녀의 고통이, 다섯 번씩이나 과부가 되는 비극에서 연유된 것이건 혹은 난잡한 생활로 인한 비극에서 연유된 것이건 간에 예수께서는 그녀를 알아보셨고, 그녀를 받아들이셨으며, 그녀를 동정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갈망에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묵시 21, 6).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예언자를 보았다. 그녀는 예수님께 예배해야 할 장소가 예루살렘인지 게리짐 산인지를 여쭙어 보았다.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진실되게 예배해야 할 곳은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결과로서, 진부하고 완고하며 무의미한 모든 것은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다.

그 여인은 메시아를 찾은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물’(요한 7, 37-38) 이었던 것이다. 부활하신 그분의 현존이 새로운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었다(마태 14, 38). 그것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상이든 혹은 예루살렘 도시 안이든 모든 다른 장소들은 이 새로운 성전에 밀려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그녀의 물항아리를 버리고 떠나갔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요한은 그녀가 물항아리를 버리고 떠나간 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난 체험, 즉 그동안 매여 있던 것을 버리는 체험을 깊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녀는 예수 안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발견으로 그녀는 제한되고 텅빈 형태의 삶과 종파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우물가에서 있었던 놀라운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성령의 힘으로 그녀는 서둘러 달려갔다.

그러나 씨카르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단순하게 믿을 수가 없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시편 42, 1), 우리 역시 하느님을 목말라 하며, 생명의 물인 예수님의 성령을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샘으로 가야 한다.

기도 안내 : 내면의 샘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분의 인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한다. 더 친밀하게 그분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빈다.

+ 기도 방법(관상과 만트라 : 24쪽과 26쪽)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히고 나의 창조주의 현존 안에서 쉰다.

나 자신의 내면 한가운데로 깊이 침잠한다. 그 한가운데에서 부드럽게 물거품을 일으키는 샘물을 상상한다. 이 물이 나의 내면에서 서서히 솟구쳐 온 전신을 통해 흐르는 것을 본다.

이 물이 내 몸 구석구석에 신선한, 그리고 정화시키는 생명의 힘을 보내는 것을 상상한다. 이 물이 나의 영혼 내부에 부드럽게 흐르도록 한다.

나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니라”고 거듭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넷째 날

반복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를 더욱 친밀하게 알고,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28쪽의 반복기도를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에 적은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감명받지 못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처음에 성서의 대목에 접근하던 방법을 사용한다. 마음을 열고 그 대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 체험, 혹은 깨달음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다섯째 날

사랑은 응답한다

요한 15, 12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들도 서로 사랑하시오.

해설

무대가 열리자 중년의 부부가 안락한 의자에 앉아 흰 케익과 아이스 크림을 먹고 있다. 그들은 피곤하지만 기쁨에 젖어, 과거를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다. 그들의 둘레에는 가족잔치를 치룬 흔적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케익 남은 것, 포장지들, 리본들, 그리고 은혼식 선물들.

아내는 덮개 위에 놓여 있는 그들의 25년 전의 결혼식 사진들을 바라본다.

아내 : 제인이 이 사진들을 찾아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아직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당신도 아세요?

남편 :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우릴 위해서 이 모든 걸 마련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
이요. 그 애들이 생전 자라지 않을꺼라고 우리가 걱정하던 때를 기억하오?

아내 : 그렇지만 이제 그 애들은 다 컸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심하고 착한지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보람이 있군요.

남편 : 다 당신 덕분이요.

아내 : 저는 저 결혼식 사진을 찍는 순간에 느꼈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항상 제 곁에 계실꺼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당신은 늘
제 곁에 계셔 주셨고요.

남편 : 당신도 마찬가지요..... 오늘 아침 밥과 로라가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지켜 보았어요. 그 애들, 참 벅찰꺼요. 붉은 직장이 확실하지가 못하니…… 그 애들을 보노라니 당신과 내가 똑같은 일을 겪었던 세월이 생각키워지지 않겠소! 난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이 됐었소. 하지만 당신은 참 훌륭한 내조자였소.

아내: 저 역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 저한테 항상 매달려 있으니 어려웠지요. 하지만 당신은 이해심이 많으셨고 저를 많이 도와 주셨어요. 전, 주말을 보내기 위해 우리 둘이서만 어딘가 가곤 했던 때가 생각나요.

남편: (웃으며) 아마도 꼭 한 번밖에는 그렇게 못했을꺼요.

아내: (정색을 하고) 네, 그렇지만 전 그 때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바람을 쏘일 필요가 있는 걸 아시고—당신은 피곤해서 집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시면서도—저와 함께 외출해 주신 일들도 기억하고 있지요.

남편: 가장 힘들었던 때는 당신을 잃는 줄로만 알았을 때요. 당신이 말끔하게 낫도록 해주신 걸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을꺼요.

아내: (눈물을 글썽이며) 그땐 매우 겁이 났어요. 당신이 곁에 없었다면 어떻게 견디어 났을지 몰라요. 의사가 제 가슴을 떼어냈을 땐, 정말 제 자신 중에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당신은 제가 온전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해주셨지요.

남편: 당신은 언제나 아름답소.

이 대화의 내용은 부부가 서로에게 항상 성실했었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 왔으며, 함께 생을 나누어온, 사랑의 직물을 짜낸 순간순간들에 대한 애정에 찬 기억이다.

그 순간순간들은 변함없는 성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항상 상대방의 곁에 있으리라는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걱정했던 길고 길었던 순간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신비로운 일치감 속에서 상대방의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었던 서로에게 가장 가까웠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도 있다.

이와 같은 세 겹의 사랑의 응답, 즉 성실성과 상대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치야말로 성 이냐시오가 진실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성실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누는 사랑에 대한 겸손한 응답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초대받은 것이다.

기도 안내 : 그리스도와 함께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욱 가깝게 따를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3쪽)

아래의 기도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내 사랑의 응답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응답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길 원하는 가를 깊이 생각해 본다.

주 예수여,

당신의 성실성을 저도 갖도록 해주소서.

저를 당신과 맺어주는 우정의 고리를 제가 결코 고의적으로 끊지 않게 하시고, 제 일생을

통해 저와 인연이 맺어진 사람들에게 항상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주 예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 사랑이 깃든 염려와 관심이 당신의 염려와 관심의 연장이 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을, 그리고 저를 위한 하느님의 뜻에 진실되게 응답하려는 열망을 갖게 하소서. 저를 자유롭게 하시어 제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항상 사랑에 가득 찬 응답을 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저를 당신처럼, 자신을 비운 사랑의 모습으로 만드시어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모욕당하는 이들 그 누구이든, 그들을 통해서 당신과 일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거리낌없이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이처럼 완전히 나를 양보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데 장애가 되는 어떠한 두려움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여,

겸양으로 권능을 받으신 주여, 당신께서 이 세상에 기쁨으로 탄생하시는데 있어 저의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이 공헌하게 하소서.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어떠한 느낌들이나 체험들, 혹은 깨달음들을 나의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여섯째 날

바오로의 마음

II 고린토 6, 3-10

우리가 하는 전도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겪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느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

바오로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

바오로가 그의 사명에 대해 서술한 것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 속에서 생활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바오로가 지닌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확고부동한 인내심을 그에게 심어주었다. 실제로 흔들림이 없는 바오로의 참을

성-그의 불굴의 정신-은 그의 말은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주된 뿌리가 되는 것이었다.

바오로의 믿음, “그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갈라 2, 20)은 그의 내면에서 뼈와 살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준 그의 사랑은 그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체험의 반영이었다. 바오로의 친절함과 순수한 마음, 그리고 고결함은 실로 그리스도의 친절함과 순수함과 고결함이었다.

타협이나 조건없이 사랑하려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순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바오로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신뢰함으로써”(갈라 2, 20) 힘을 얻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긴 바오로는 자신의 전부를 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받았던 것이다.

바오로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기도 안내 : 그리스도와 함께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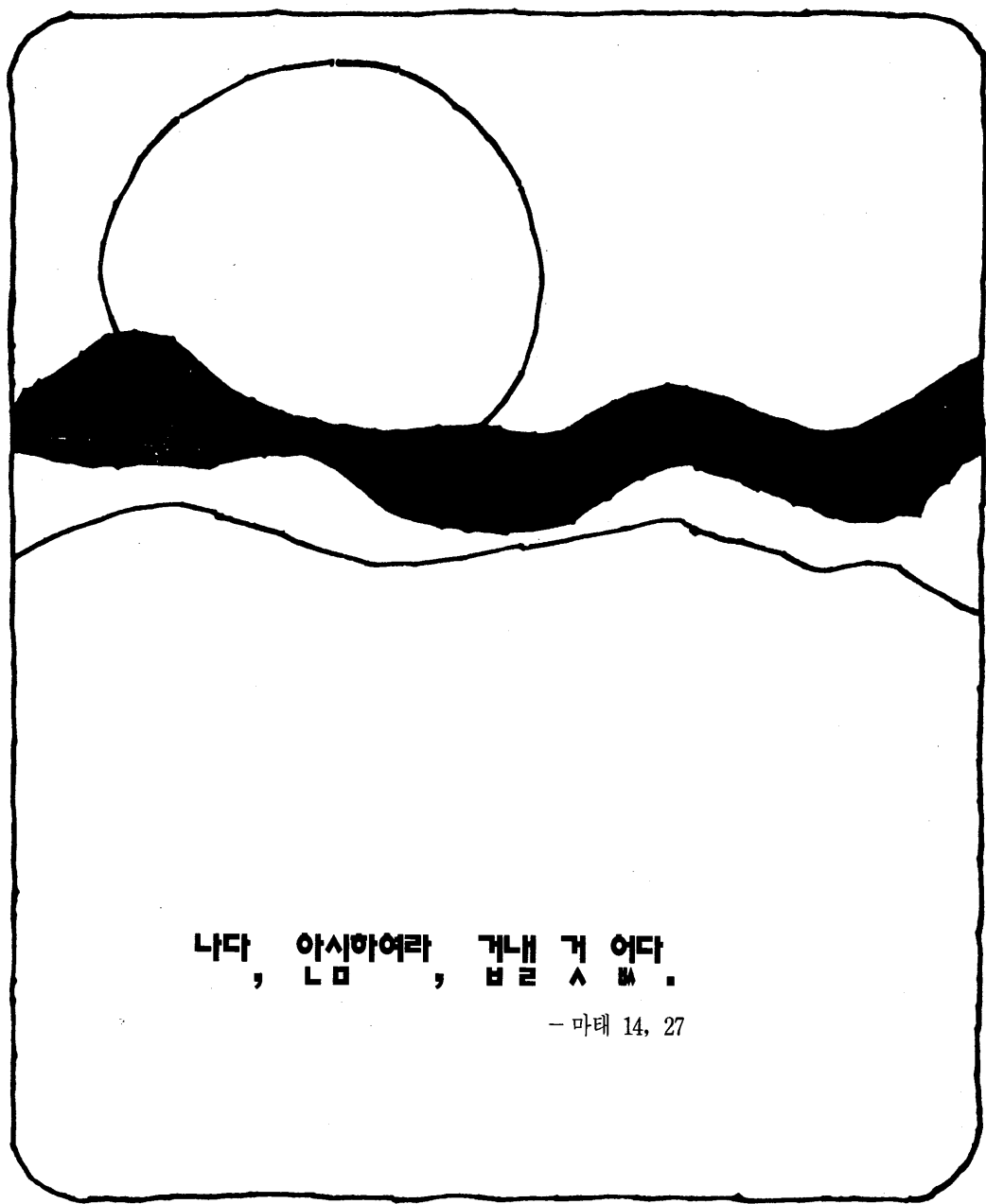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욱 가깝게 따를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다섯째 날의 기도 ‘그리스도와 함께’(171쪽)를 사용한다.



나다, 아시하여라, 거내 거 어다
, L M , B R A T .

- 마태 14, 27

여섯째 주, 첫째 날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마태오 14, 22-23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해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의심을 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압도되어 있거나 생활 가운데 위협적이고 거센 어떤 힘에 의해 강타를 당했을 때, 믿음과 자신감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보고 그만 무서워졌으며, 그러자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에 우리는 선택을 하도록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자기 의심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큰 힘이나 어떤 존재에 손을 뻗치게 된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칠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힘을 갖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성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기적이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마태 28, 20).

마태오 복음 사가는 이와 같이 매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활 이후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변함없는 믿음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우려 하였다.

이야기를 되새겨보면, 배는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성난 풍랑은 그 공동체를 위협하던 박해의 물결과 흡사하였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처럼, 기독교도들도 그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잃게 될, 그리고 ‘풍랑’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게 될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믿음은 “나요, 안심하시오, 겁낼 것 없소”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또 다시 불타오를 것이었다.

현대의 기독교 공동체 일원들로서, 우리 역시 의심과 불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에 자주 구름이 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좌우되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 쉽게 그것을 의문시한다. 그 반면, 어떤 때는 또 지나치게 논리적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은총의 순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부정하려 들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변명을 하며 발뺌을 하려드는 경향이 있다.

초기의 기독교도들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현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체험을 믿는 일이다.

오직 믿음 속에서만이 우리의 시야가 밝아진다.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맡길 때 진실이 드러나고 자유가 실현되며, 진실된 예배가 시작된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 속에서 그분께서 현존하시는 기적에 마음을 열게 된다.

기도 안내 : 물 위를 걷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풍랑이 일어 배가 뒤흔들리자 제자들이 그것을 제어하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본다. 뒹뒹거리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갑판 양쪽으로 흩뿌리는 잔물의 감촉을 느낀다.

어떤 물체가 어지러운 물을 건너서 배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상상한다. 제자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두려움, 혼란스러움, 놀라움의 표정들을 상상한다.

예수께서, “안심하시오, 나요, 겁낼 것 없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외칠 때 나도 그와 함께 있다.

예수께서, “오시오”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라면 어떻게 응답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나라면 안전을 지켜줄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한다. 두렵고 의심이 들자 그가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나 자신이라면……’ 하고 상상해 본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나의 마음속에 떠오른 영상들, 깨달음들, 그리고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둘째 날

신심 깊은 예리고 사람

마르코 10, 46-52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 때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 주자 소경은 겹옷을 벗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갔다.

해설

예리고에 살고 있었던 앞 못 보는 맹인인 바르티매오는 매우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바르티매오는 그가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컸다.

성서의 이야기 속에는 눈이 머는 것이 흔한 병이었고 따라서 길가에서 눈먼 거지들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그들은 흔히 도시나 마을의 입구 가까이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주는 적선을 받으려고 외투를 앞에 펼쳐 놓고 앉아 있었다.

바르티매오는 신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멀지 않았다. 눈이 먼 그의 직관력은 날카로웠다. 그들과 어둠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도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이 열릴”(이사 35, 5) 때를 기다리면서 희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중, 예수께서

다가오실 때, 바르티매오는 그분이 바로 약속된 분임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으로 보아 고대하던 치유를 행할 수 있는 분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의 둘레에 있었던 사람들의 질책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끈질긴 태도를 보인 것은 그의 요구가 긴박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권능을 깊이 믿고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예수께서는 그의 외침을 들으셨다.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바르티매오는 자신이 바라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바르티매오는 깊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불리움을 받자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시력을 되찾으려고 그는 달려간 것이다.

바르티매오가 예수님의 발밑에 ‘확신에 차서 자신을 내어맡긴’ 바로 그 순간, 타인들의 너그러움에 의지하여 구걸하던 몇 해 동안의 생활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바르티매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충실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자마자 그의 시력을 되찾았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바르티매오의 태도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들도 내어맡겨 평생 동안 남을 섬겨야 한다는 깨달음이 부족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들의 첫번째의, 그리고 우선적인 관심은 왕국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마르 10, 35).

그러나 바르티매오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알아봄으로써 동기를 얻은 것이다. 그는 그가 그 때까지 바라왔던 것을 예수님 안에서 본 것이다.

‘시력’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장애를 지닌 우리들은 이러한 바르티매오에게서 영감을 받아 인내와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어 낮게 하시도록 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낮게 하시며 현존해 계신다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요한 8, 12), “나는 길입니다”(요한 14, 6)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자각을 갖게 될 것이다.

기도 안내 :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을 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나 자신을 길가에 앉아 있는 앞 못 보는 사람으로 상상한다. 내 주변에서 나는 냄새들과 소리들을 감지한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앞을 볼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본다.

나의 내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상기해 본다. 누구를 위해 가장 자주 예수님께 기도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나를 격려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당신께로 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유롭게 되려면 나는 무엇을 떨쳐버려야 하는가를 깨닫도록 한다.

나는 예수님의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라는 질문을 들으며 그 질문에 대답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살렸소”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내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느낀 나의 느낌에 유의한다.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힘이 어떻게 나를 격려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가.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느낌들과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셋째 날

믿음으로 만지다

마르코 5, 25-34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 대며 따라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 서서 군중을 둘러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 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모든 것들의 그 깊은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선함이 있다.”

지금까지, 그녀의 타고난 끈질김 이외의 모든 것들은 실패해왔다. 12년 동안 그녀는 하혈증으로 창피와 고통을 겪어왔다. 12년 동안 그녀는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신체적인 고통을 견디어야 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혈하는 여인들을 터부시하는 관습 때문에, 그녀는 파도림을 당하기까지 했었다.

이 터부로 하여 그녀는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어 예식에 참여하지도 못하였으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취급받아 왔다. 남편을 더럽히게 될까봐 그녀는 그와 동침하지도 못하게 강요받았다. 게다가 그녀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금지당했으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었다(레위 15, 19-30).

십수 년에 걸친 고통과 실망과 외로움을 그녀로 하여금 견디어낼 수 있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힘과 의지였을 것이다. 그와 같은 외면적인 상실과 육체적인 고갈 상태 속에서도, 그녀는 끈질긴 내면에서의 추구를 계속했음에 틀림없다.

다른 일들을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오직 한 가지 남은 선택으로써 용감하게 이 내면적인 여행을 추진하여 그녀 자신의 선의 힘으로 궁극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인내의 보상으로 지혜를 얻었다. 자신의 내적인 힘이 지닌 선으로 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안에 모든 선의 원천이 있음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생명력을 되찾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다. 그녀는 이 선의 원칙과 권능에 이끌리어, 예수님께 접근하였다.

군중에게 떠밀리면서—터부로 인해 구속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그녀는 예수께 다가갔다.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

손을 대자마자 그녀의 병이 나았다!

바로 그 순간에 인간과 신이 만난 것이다. 믿음이 전달되어 신의 권능의 힘이 뻗어나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을 내면 깊이 느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셨다. 그분은 자신에게서 기적의 힘이 뻗어나간 것을 아셨으며, 당신이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을 아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소?”

예수께서 끈질기게 그녀를 찾으셨으므로,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분은 군중 속에서 그녀를 불러내셨다. 그분은 불안한 자기 근심이나 열등감의 찌꺼기

속으로부터 그녀를 불러내 주셨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게 될 것이다.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믿음 속에서 ‘온전하게 된’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녀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광채가, ‘가장 사랑스러운 신선함’이 나타난 것이다.

기도 안내 : 낮게 하는 손길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 그분께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낮게 하시는 권능을 지니셨음을 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나 자신을, 몇 년 동안 하혈증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그 결과로 실망과 온 힘의 소모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으로 상상해 본다.

군중 틈에 들어가서 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핀다.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본다. 그분의 언행에 특히 주의하면서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본다.

- 나의 내면의 어떤 점들을 고쳐야 하는가? 내게서 정열을 앗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 나의 상태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정결하지 못하게, 고립되게, 외롭게 느끼게 하는가?

- 군중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리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떤 심정인가

- 병을 고치려고 애쓴 몇 년 동안의 노력

- 병을 고치고 싶은 나의 깊은 갈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분께 다가가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그분의 옷을 만질 때 예수님의 힘을 체험하기 위해 나의 마음을 연다. 이 체험을 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깨닫는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살렸소.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시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마음속에서 우러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눈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3권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나를 감동시킨 말들과 기도 중에 떠오른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넷째 날

그리스도를 기꺼이 맞아들임

루가 10, 38-42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였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종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해설

만약에 마르타가 앞으로 나서서, 이 일이 있었을 때 정말로 어떻게 느꼈었는지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아마 성서학자들도 그것을 좋아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세기 이후부터는 이 대목이 활동적인 봉사생활에 반대해서, 그리고 그것보다 관상생활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선호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마리아는 관상생활의 모범으로 격찬을 받아온 반면, 마르타는 덜 ‘영신적’이며 오직 물질적인 일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마르타에게는, 그녀에 대해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면이 있다. 요컨대 그녀는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들였다. 그것은 그녀가 환대적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녀가 안절부절 못했던 것도 그녀가 모셔들인 손님을 매우 존경했었기 때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스는 14세기의 설교가들과는 반대로, 마르타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마르타가 그녀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원숙한 능력을 지닌 성숙한 여인으로 보았다.

그는 그녀가 “주님, 제 동생이 이 많은 일을 제게만 맡겨두는 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라고 비난을 담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도, 마리아가 관상의 기쁨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우리가 마리아를 어떻게 보기로 선택하든 간에, 이 대목이 지닌 의도는 관상과 활동적인 봉사가 서로 대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 깊은 마음을 갖고 듣지 않는다면, 봉사활동은 공허하게 되고 또한 강제성을 띠게 되며, 불안스러운 노력이 되고 만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성숙한 사도들은 그들의 기도와 일을 잘 조정하여 활동 속에서 관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생활은 기도와 일의 윤희적인 균형을 갖추어, 그리고 기도와 일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생활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거침없이 잘 융합된다. 일과 기도는 서로를 혼란시키지 않으며, 그 반대로 서로를 살찌우게 한다.

활동하는 관상가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실존의 현실과, 평범한 상황과 실질적으로 생활이 요구하는 것의 현실 속에 동시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그것은, 즉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맡길 때 그 기도가 완성되고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보답을 받게 된다. 즉 우리의 세계가 계속 창조되며 새로워지도록 하는 사업을 위해 그리스도께 더욱 열심히 협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은총을 다시 받고자 하는 새삼스러운 열정을 갖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마리아와 마르타는 더욱 깊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다. 우리는 ‘홀로 신성과 인간성의 상호작용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기꺼이 맞아들인다.

기도 안내 : 방문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의 정신, 즉 활동 안에서 관상하는 정신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님께서 나의 '집'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을 기꺼이 환영하면서 맞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한다.

그분의 방문을 기다리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분께서 오시길 기대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즉 불안감, 두려움, 흥분, 희망 등을 깨닫는다.

그분께서 집 가까이로 다가오시는 것,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상상한다.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여 듣고 응답하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 (20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기도 후 반성

기도 중에 떠오른 느낌들과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다섯째 날

반복

기도 안내 : 28쪽의 반복기도를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더욱 깊이 사랑하며, 더욱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반복기도 : 28쪽)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에 적은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감명받지 못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처음에 성서의 대목에 접근하던 방법을 사용한다. 마음을 열고 그 대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 체험,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여섯째 날

사랑의 혁명

루가 6, 17-38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 주고 누가 겹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꾸어 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해설

언젠가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네.

그분을 보자 내 마음은 뒤바뀌어졌네.

그리고 그분이 지나치는 동안 내 마음은 고요해졌네……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뒤바뀌어, 위아래가 바뀌고 안팎이 변화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혁신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보편적이며, 몇몇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다. 예수님의 생애가 지닌 권능은, 부러지고 다쳐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매혹시킨다.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완전한 의미를 발견한다.

그분의 말씀은 이 세상에 희망을 준다. 그분은 가난과 배고픔과 비탄과 학대와 거부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약속하신다. 예수께서는 불행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의존하는 것을 축복하시는데, 하느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충만함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역시 이 충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조금 가지고 있든지, 혹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든지 간에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우리 자신을 요구하신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우 크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분은 “훌륭한 열매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나 무까지도 원하신다. 활동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까지도, 무언가가 아닌 나 자신을,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나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현대의 문화에 반대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사랑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천박한 것임을 드러내준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나쁘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며, 우리의 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염려해줄 줄 아는 동정심을 갖고 그들에게 응답하도록 요구된다.

사악한 폭력에 대항해 생존할 수 있는 선택은 사랑뿐이다. 보복은 폭력을 확대시키며 죽음으로 이끈다.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려는 것은 “악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폭력을 다스리는 것은 폭력을 중화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죽음 속에서 삶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혁명이며 사랑의 발전이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텅빈 가슴을 넘쳐 흐르도록 채워준다. 하느님의 자비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지닌 동정심의 표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여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삼가하며, 모든 상처를 용서하면서 사랑하여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적이며 용서하는 사랑의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은총 말고는 그 어느 보상도 바라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여야 된다.

기도 안내 : 세계를 위한 희망의 기도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징표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3쪽)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의 가슴 속으로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자주 잠깐씩 쉬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정신을 완전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나누어가져서, 나 역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현존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분의 사업에 나 자신을 바친다. 다음의 기도를 드린다.

세계를 위한 희망의 기도

주님, 우리는 곤궁에 처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거대하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 보일 정도로 큰 위기에 우리가 빠져 있음을,
 그래서 하루 속히 선(善)의 힘을 작동시켜야 됴를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뻔뻔스러운 국수주의가 있는 곳에,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관심이;
 전쟁과 무력 충돌이 있는 곳에, 협상이;
 핵무기 저장이 있는 곳에, 무장 해제가;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곳에, 불간섭이;
 소비주의가 횡행하는 곳에,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려는 관심이;
 물자가 넘치는 곳에, 서로 나누며 단순하게 생활하려는 선택이;
 외적인 행동주의에 의존하는 곳에, 주님께 믿음을 갖고 의지하려는 균형이;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있는 곳에, 공동체에게 열린 마음이;
 불공평으로 인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곳에, 죄의식과 참회와 죄의 보상이;
 극악무도한 사건 앞에 마비되고 무감각해진 곳에,
 공동의 노력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소서.
 주님, 남에게서 돌봄을 받기보다 남을 돌보게 하시고,
 물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기보다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완전히 체험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지닌 상처받기 쉬움에서 가능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에 아무리 손해를 입는다 해도 남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남을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새로운 탄생과, 이 세계에 희망을 가져올,
 인생의 병을 낫게 해주는 샘을 발견합니다.

부록1 : 추가 기도문

그리스도의 영혼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제가 먹고 마실 양식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수난과 죽으심이 저의 힘과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제 곁에 계심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드리우는 그림자가 제가 찾으려는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제가 달아나지 말게 하시고,
저를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붙잡아주소서.
제가 죽음과도 같은 어두움을 겪을 때마다 당신의 빛과 사랑을 쏟아 주소서.
당신의 성인 성녀들과 함께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는 날이 올 때까지
항상 저를 불러 주소서.

David Fleming 신부 영성수련 : 현대적 번역

놓아 주기

줄곧 염려가 되는 그대에게,
 나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하느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맡깁니다.
 당신을 나의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놓아주겠습니다.
 당신을 소유하듯이 붙잡고 있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을 살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겠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내 생각들과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렵니다.
 나의 사고를 당신의 저 너머로, 인간적인 수준 이상으로 고양시키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 그분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나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그분의 계획을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하며
 중요하게 만드는 자질과 능력이 주어진 존재로 당신을 하느님께서 보시듯이,
 나도 그렇게 당신을 보겠습니다.
 당신을 속박하지 않으렵니다.
 인생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력을 당신은 갖지 않았다고
 더 이상 믿지 않으렵니다.
 당신께 축복을 드립니다.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 작자 미상 -

부록 2 :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성서 구절들과 해설들을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과 맞추어 나열하였다. 괄호 안의 번호는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의 원본에 있는 번호를 나타낸다.

원리와 기초 : 시리즈 첫 권 「사랑」 참조.

첫째 주를 위해서는 시리즈 둘째 권 「용서」 참조.

둘째 주

첫째 날(101-120)

윤희

(262) 루가 1, 26-38 : 침묵과 내어맡김.....37

하느님의 완전한 선물.....41

새로운 창조.....45

(263) 루가 1, 39-56 : 기쁨의 용약.....49

예수탄생

(264) 루가 2, 1-4 : 시간을 초월한 탄생.....54

둘째 날(132-133)

(267) 마태오 2, 1-12 : 찾아다님.....67

(268) 루가 2, 22-39 : 기다림의 끝.....62

(269-270) 마태오 2, 13-23 : 이집트에서의 귀환.....71

셋째 날(134)

(271) 루가 2, 51-52 : 예수와 소년 시절.....	76
(272) 루가 2, 41-50 : 소년 예수를 찾음.....	80

넷째 날(136-148)

두 종류의 지도자들, 두 가지의 전략들

셋째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86
I 디모테오 6, 3-12 :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다.....	89
갈라디아 5, 16-25 : 성령의 지도를 따라.....	96
마르코 10, 35-45 : '나'로부터 '우리'에로.....	103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149-157)

마태오 6, 33 : 세 사람.....	112
마르코 10, 17-30 :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117

다섯째 날(158-159)

(273) 마태오 3, 13 : 성령 안에서 걷다.....	124
(273) 마태오 3, 13. 16-17 :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128
이사야 42, 1-9 : 참된 정의.....	133

여섯째 날(161)

(274) 마태오 4, 1-11 :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139
--------------------------------------	-----

일곱째 날(161)

(275) 요한 1, 33-51 : 와서 보시오.....	152
---------------------------------	-----

여덟째 날(161)

(278) 루가 6, 17-38 : 사랑의 혁명.....196

아홉째 날(161)

(280) 마태오 14, 22-33 : 물 위를 걸으신 기적.....178

다른 성서 구절들(162)

루가 4, 16-30 : 취임사.....145

(276) 요한 2, 1-11 : 가나의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157

요한 4, 5-30. 39-42 : 생명의 물.....162

마르코 10, 46-52 : 예리고의 믿음 깊은 맹인.....182

마르코 5, 25-34 : 믿음을 갖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186

루가 10, 38-42 : 예수를 환영함.....191

세 가지 종류의 겸손(165-168)

요한 15, 12 : 사랑은 응답한다.....169

II 고린토 6, 3-10 : 바오로의 마음.....174

부록 3 : 기도 안내 목록

루가 1, 26-38 : 떠도는 성령(관상).....	38
천사의 메시지(관상).....	43
내어맡김(내심기도, 만트라).....	47
루가 1, 39-56 : 침묵과 기쁨(관상).....	53
루가 2, 1-14 : 동굴 안에서(관상).....	58
루가 2, 22-39 : 성전 안에서(관상).....	66
마태오 2, 1-12 : 별을 따라서(관상).....	70
마태오 2, 13-23 : 요셉과 함께(관상).....	75
루가 2, 51-52 : 나자렛 방문(관상).....	78
루가 2, 41-50 : 꿈을 나누다(관상).....	83
I 디모테오 6, 3-12 : 부에서 자유어로(관상, 묵상).....	91
갈라디아 5, 16-25 : 명예로부터 나약함으로(관상, 묵상).....	98
마르코 10, 35-45 : 자만심에서 조건없는 사랑으로(관상, 묵상).....	105
마태오 6, 33 :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다(묵상).....	114
마르코 10, 17-30 : '네'라고 대답하기(관상).....	120
마태오 3, 13 : 인생의 공(묵상).....	125
마태오 3, 13. 16-17 : 물 속에서 축복받다(내심기도).....	130
이사야 42, 1-9 : 종의 기도(관상).....	137
마태오 4, 1-11 : 광야로 나아가다(관상).....	142
루가 4, 16-30 : 예수님의 용기(관상).....	148

요한 1, 35-51 : 초대(관상).....	155
요한 2, 1-11 : 혼인잔치에서(관상).....	160
요한 4, 5-30. 39-42 : 내면의 샘(내심기도, 만트라).....	166
요한 15, 12 : 그리스도와 함께(묵상).....	171
II 고린토 6, 3-10 : 그리스도와 함께(반복).....	175
마태오 14, 22-33 : 물 위를 걷다(관상).....	180
마르코 10, 46-52 :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관상).....	184
마르코 5, 25-34 : 낮게 하는 손길(관상).....	188
루가 10, 38-42 : 방문(관상).....	193
루가 6, 17-38 : 세계를 위한 희망의 기도(묵상).....	200

성서 구절 색인

창세기

1, 2	46, 128
1, 2-5	135
22, 2	129
25, 22	50

출애굽기

1, 15-21	73
13, 11-16	64
14, 15	128

레위기

12, 1	64
15, 19-30	187

사무엘 상권

2, 1이하	52
--------	----

역대기 하권

36, 22-23	135
-----------	-----

시편

42, 1	165
46, 10	26
77, 14, 16	158
91, 11-12	141

130, 6	64
--------	----

아가서

2, 10-12	18
----------	----

지혜서

7, 4-5	56
8, 1	55

이사야서

1, 3	56
30, 15	135
35, 5	182
40, 1이하	64
40, 29-31	137
41, 1-7	134
42, 1	129
42, 1-9	133
43	135
44, 28	135
49, 6b	147
53, 10	129

예레미야서

14, 8	56
-------	----

29, 11. 13.....	82
31, 16. 17. 20. 22.....	74

에제키엘서

3, 2-3.....	27
-------------	----

호세아서

11, 1.....	73
------------	----

요엘서

3, 1.....	65, 130
-----------	---------

마태오 복음

1, 23.....	73
2, 1-12.....	67
2, 13-23.....	71
3, 13.....	124
3, 13. 16-17.....	46, 128
4, 1-11.....	139
6, 33a.....	112
14, 22-33.....	178
22, 37.....	90
27, 37.....	69
28, 19.....	69
28, 20.....	178

마르코 복음

5, 25-34.....	186
10, 17-30.....	117
10, 35-45.....	103, 183
10, 46-52.....	182

루가 복음

1, 11.....	42
1, 26-38.....	37, 41, 42, 45
1, 39-56.....	49
2, 1-14.....	54
2, 22-39.....	62, 63
2, 41-50.....	80
2, 51-52.....	76
4, 16-30.....	145
6, 17-38.....	196
8, 21.....	51
10, 38-42.....	191
12, 49-50.....	129
18, 18.....	118
22, 25.....	56

요한 복음

1, 7-8.....	51
1, 35-51.....	152
2, 1-11.....	157
2, 19.....	158
3, 29.....	51
4, 5-30. 39-42.....	162
6, 35.....	159
7, 37-38.....	165
8, 12.....	159, 184
14, 6.....	184
14, 9.....	154
15, 12.....	169
19, 25-27.....	159

사도행전	
2, 17.....	65, 130

로마서	
8, 15. 26.....	26
16, 25.....	88

고린토 후서	
3, 18.....	78
5, 17.....	129
6, 3-10.....	174

갈라디아서	
2, 20.....	98, 174
4, 19.....	91
5, 16-25.....	96

에페소서	
3, 4.....	27

골로사이서	
3, 3.....	76

디모테오 전서	
3, 16.....	90
6, 3-12.....	89

베드로 전서	
5, 8.....	87

묵시록	
21, 4.....	158
21, 6.....	165
22, 13.....	55

BIBLIOGRAPHY

1. Abbot, Walter M., ed. *The Documents of Vatican II*. New York : American Press, 1966.
2. Albright, W. F., and C. S. Mann. *Matthew*.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71.
3. Anderson, Bernard W.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5.
4. Barclay, William. *The Gospel of John*. Vol. 1.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5. _____. *The Gospel of Luke*.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6. _____. *The Gospel of Matthew*. Vol. 1, Vol. 2.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7. _____. *The Gospel of Mark*.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8. _____. *The Letters to the Corinthian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9. _____. *The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6.
10. _____. *The Letter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11. Bergan, Jacqueline, and Marie Schwan. *Peace*. Privately printed 1983 ; available through Center for Christian Renewal, Box 87, Crookston, MN 56716.
12. Bridges, Robert, ed. *Poems of Gerard Manley Hopki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13. Brown, Raymond E. *The Birth of the Messiah*.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77.
14.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66.
15. _____, et al.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68.

16. Brueggemann, Walter. *The Prophetic Imagination*.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8.
17. Caird, G. B. *Saint Luke*. London : Penguin Books, 1963.
18. Cowan, Marian, and John C. Futrell.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 A Handbook for Directors*. New York : Le Jacq Publishing, 1982.
19. Crosby, Michael H. *Spirituality of the Beatitudes*. Maryknoll, NY : Orbis Books, 1981.
20. cummings, e.e. *Poems, 1923-1954*.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World, 1954.
21. Danielou, Jean. *The Infancy Narratives*.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68.
22. de Mello, Anthony. *Sadhana, A Way to God*. Sain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Resources, 1978.
23. Downing, Christine. *The Goddess : Mythological Images of the Feminine*. New York : Crossroad Publishing Co., 1981.
24. Eliot, T. S.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World, 1962.
25. English, John. *Choosing Life*. New York : Paulist Press, 1978.
26. _____. *Spiritual Freedom*.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74.
27. Fallon, Francis T. *2 Corinthians*.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0.
28. Fenton, J. C. *Saint Matthew*. London : Penguin Books, 1963.
29. Fitzmeyer, Joseph.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81.
30.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85.
31. Fleming, David.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 A Literal Translation and a Contemporary Reading*. Sain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Resources, 1978.
32. Fox, Matthew. *Breakthrough*. Garden City, NY : Image Books, 1977.
33. _____. *Original Blessing*. Santa Fe, NM : Bear and Co., 1983.
34. Gill, Jean. *Images of My Self*. New York : Paulist Press, 1982.
35. Greenleaf, Robert K. *Servant Leadership*. New York : Paulist Press, 1977.
36. hall, Nor. *The Moon and the Virgin*. New York : Harper and Row, 1980.
37. Harrington, Wilfred. *Mark*.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79.
38. Heschel, Abraham J. *The Prophets*. New York : Harper and Row, 1962.

39. Houselander, Caryll. *The Reed of God*. New York : Sheed and Ward, 1954.
40. Houston, Jean. *Life Force*. New York : Dell Publishing Co., 1980.
41. Jung, Carl G. *Man and His Symbols*. New York : Valor Publications, 1964.
42. Karris, Robert J. *The Pastoral Epistles*.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79.
43. Kung, Hans. *On Being a Christian*.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76.
44. La Verdiere, Eugene. *Luke*.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0.
45. Lynch, John W. *A Woman Wrapped in Silence*. New York : Paulist Press, 1968.
46. McBrien, Richard P. *Catholicism, Vol. I, II*. Minneapolis : Winston Press, 1980.
47. McGann, Diarmuid. *The Journeying Self*. New York : Paulist Press, 1985.
48. McKenzie, John. *Dictionary of the Bible*. Milwaukee : The Bruce Publishing Co., 1965.
49. _____. *Second Isaiah*.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68.
50. McPalin, James. *John*.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79.
51. Magana, Jose'. *A Strategy for Liberation*. Hicksville, NY : Exposition Press, 1974.
52. Maloney, George A. *Alone with the Alone*. Notre Dame, IN : Ave Maria Press, 1982.
53. Meier, John P. *Matthew*.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0.
54.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The Sacramentary*. New York : Catholic Books Publishing Co., 1974.
55. Neumann, Erick. *The Great Mother*.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56. Nineham, D. E. *Mark*. Baltimore : Penguin Books, 1963.
57. Osiek, Carolyn. *Galatians*.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0.
58. Paoli, Arturo. *Freedom to Be Free*. Maryknoll, NY : Orbis Books, 1973.
59. Pennington, M. Basil. *Centering Prayer*. Garden City, NY : Image Books, 1982.
60. Rahner, Karl.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New York : The Seabury Press, 1978.
61. _____. *Spiritual Exercises*.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56.
62. Rollings, Wayne G. *Jung and the Bible*. Atlanta : John Knox Press, 1983.
63. Sanford, John A. *The Kingdom Within*. New York : Paulist Press, 1970.
64. _____. and Paula Sanford. *The Elijah Task*. Plainfield, NJ : Logos International, 1977.
65. Scullion, John. *Isaiah 40-66*.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2.

66. Stanley, David M. *A Modern Spiritual Approach to the Spiritual Exercises*. Sain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Resources, 1971.
67. Tannehill, Robert C. *A Mirror for Disciples : A Study of the Gospel of Mark*. Nashville : Disciples Resources, 1977.
68. Taylor, Vincent.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66.
69. Teilhard de Chardin, Pierre. *The Divine Milieu*. New York : Harper and Row, 1966.
70. Ulanov, Ann Belford. *The Feminine in Jungian Psychology and in Christian Theology*. Evanston, IL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1.
71. van der Vaart Smit, H. W. *Born in Bethlehem*. Baltimore : Helicon Press, 1963.
72. Veltri, John. *Orientations. Vol. I : A Collection of Helps for Prayer*.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79.
73. _____. *Orientations, Vol. II : Annotation 19 : Tentative Edition*.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81.
74. von Franz, Marie-Louise. *Projection and Re-Collection in Jungian Psychology*. La Salle, IL : Open Court Publishing Co., 1980.

NIHIL OBSTAT

Andreas Yeom, Censor
Seoul, die 5, Jul. 1993

IMPRIMATUR

Stephanus Cardinal Kim
Archiepiscopus Seoulensis
Seoul, die 5, Jul. 1993

탄 생(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3권)

1993년 9월 8일 펴냄

글쓴이 재크린 시럽 버간 & 마리아 슈완
옮긴이 조순자
펴낸이 정옥동

펴낸데 성모출판사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10

전화 : 266-4251, 275-0924 FAX : 275-0925

등록 : 1988년 3월 21일 제2-530호

값 6,000원

웁긴이

조순자(안젤라) 수녀

성심여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Marymount University, Virginia

회계학 석사, 수학과 교사

Washington Theological Union,

Washington, D.C. 종교 교사

현, 미국 버지니아주 분도수녀원

감수자

변희선(안셀모) 신부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예수회 한국지부분부 소속 회원

현재, 미국 Boston College

조직신학 박사 과정 중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세번째 책인 이 「탄생」은
예수님의 성령을 구현시키는 인생 여정에서
각자에게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삶이 지니는
심오한 의미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하시는 동안
스스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지상 삶을
관상하도록 우리는 초대받았다.

 성도출판사

ISBN 89-704